

임업관측사업

2011년 사업결과와 2012년 추진계획

민 경 택	부 연구 위원
장 철 수	연구 위원
석 현 덕	선임연구위원
송 성 환	전문 연구원
안 선 진	초청 연구원
김 진 경	위촉 연구원
조 국 훈	위촉 연구원

머 리 말

우리 연구원에서는 산림청의 지원 하에 2003년 밤을 시작으로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등 임업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해 왔으며, 2010년에는 산채류, 조경수 등을 포함한 6개 품목의 관측이 실시되었다. 향후 DDA, FTA 등 국제교역 여건의 변화와 함께 임산물관측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업관측사업의 목적은 임산물의 재배에서부터 생산, 판매, 유통, 수출입에 이르기 까지 단기 동향을 분석 및 전망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데 있다. 산지에는 품목별 표본 임가, 통신헌 및 지역자문위원을 두고 있고 중앙에는 중앙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객관적이며 내실 있고 신뢰성이 높은 관측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월보발행과 함께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업관측정보를 개설하여 임업관측 월보와 연차동향/전망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측결과를 다양하고 신속하게 분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발행된 월보는 PDF 파일로도 변환되어 게시되므로 쉽게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 자료는 2011년도 임업관측사업의 결과물과 2012년도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 자료가 임업관측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산림청 관계자와 임업관측사업에 협조해 주신 중앙 및 지역자문위원, 표본 임가, 시·군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목 차

제1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2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3
4. 기대 효과 5

제2장 2011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6
2. 임업관측사업 추진실적 및 체계 7
3.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결과 9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17
5. 품목별 2011년 동향 및 2012년 1/4분기 전망 47

제3장 2012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계획(안)

1. 대상 품목 및 내용 63
2. 세부 추진계획 64
3. 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68

제4장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1. 임산물 생산 동향 70
2. 밤 72
3. 표고버섯 84

부록 1: 임업관측(밤) 월보 99

- 2: 임업관측(표고버섯) 월보 131
- 3: 임업관측(대추)월보 173
- 4: 임업관측(뽕은감)월보 197
- 5: 임업관측(산채류)월보 221
- 6: 임업관측(조경수)월보 243
- 7: 임업관측(종합호) 263
- 8: 2011년도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275

제 1 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1. 임업 관측사업의 필요성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산물 시장은 국내 여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음.
 - 해외 시장의 변화는 국내 생산과 가격,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임산물 생산계획 수립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음.
- 시장동향과 가격, 해외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임산물의 시장 출하를 안정시켜서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임가 소득을 안정시키게 될 것임.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생산액과 생산자수도 많으며 농산촌 주민의 소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의 계절성을 가지므로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출하시기에 따라 생산자 판매가격이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지며 도로와 교통의 발전으로 물류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임산물 판매에서도 속도와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음.

-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급안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산물 시장의 정보수집과 분석, D/B 구축, 관측결과물의 분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임업관측 사업이 필요함.

1.2. 임업관측사업의 목적

- 임업관측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임산물 시장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종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관련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 단기적인 출하와 가격, 출하시기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재배자들의 생산계획 수립과 출하 조절 의사결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임산물의 수급안정 및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임.
- 임산물 생산 및 경영의 합리화, 유통기능의 원활화 등을 위해 임산물 재배동향, 가격동향 및 수급동향에 관한 중단기 예측정보를 개발하고 관측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 작황, 가격, 수출·입, 해외시장 동향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임산물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유도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자율영농의 기반을 마련함.
 - 광범위한 정보수집 체계 확립
 - 종합적 정보분석 능력제고
 - 관측정보 분산체계 확립
- 임산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확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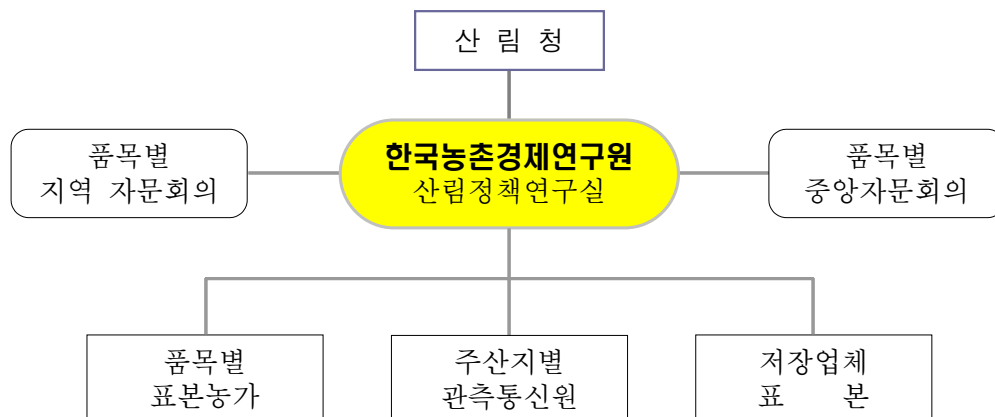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3.1.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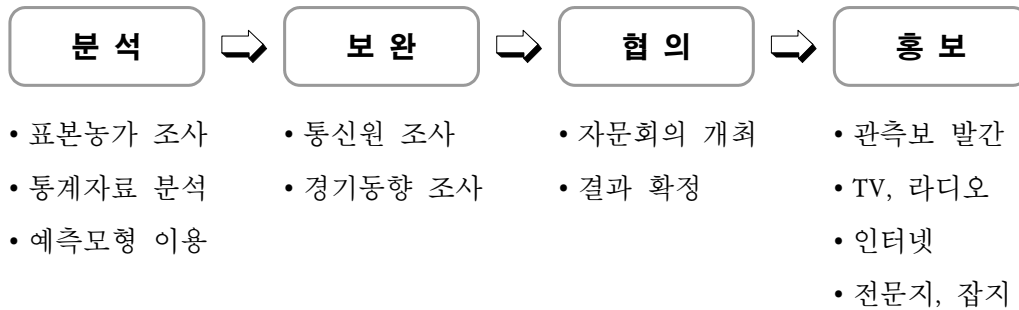
- 품목별 시장동향 및 단기전망
 - 품목별 재배동향 및 단기예측
 - 품목별 작황 및 출하 동향, 가격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연차 동향 및 중장기 전망
 - 거시경제, 품목별 국내외 시장의 연차동향
 - 품목별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
- 관측/전망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임업관측 홈페이지 구축, 콘텐츠 개발·유지 및 관리
 - 관측 D/B구축 및 현황 정보 제공
 - 관측정보시스템 개발
 - 단기 예측기법, 중장기 예측모형 개발

3.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3.2.1. 관측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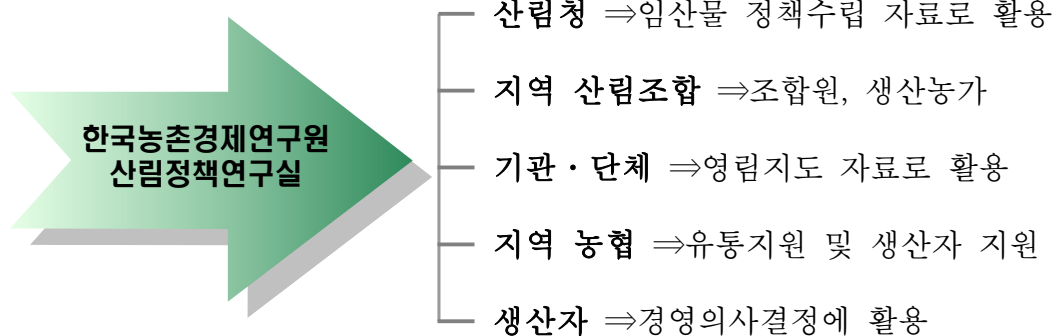
3.2.2. 관측 방법



3.2.3. 관측결과 홍보

- 본안 홍보 : 임업관측 월보, 인터넷
- 전단 홍보 : 필요시
- 해설 홍보 : 전문지, 신문, TV, 라디오
- 교육 활동 :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자 교육

3.2.4. 홍보 체계



4. 기대 효과

- 임산물의 품목별 수급동향, 가격 동향 및 미래정보를 제시하여 생산자들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배품목의 선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 정확하고 신속한 시장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임산물의 시장 정보를 인터넷, TV, 라디오, 월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생산 및 유통 종사자의 정보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상시적인 시장정보의 수집으로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음.

제 2 장

2011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1.1.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 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조경수, 산채(6개)
- 사업 금액: 6억원

1.2.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가격동향 및 전망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생산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저장 동향
- 해외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2. 임업관측사업 추진실적 및 체계

2.1. 관측 실적

□ 밤

- 준비: 2011년 1~2월
- 월보발간: 2011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 12월은 통합호를 발간
 - 발행부수: 각각 3,876부

□ 표고버섯

- 준비: 2011년 1~2월
- 월보발간: 2011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간, 12월은 통합호를 발간
 - 발행부수: 각각 3,597부

□ 대추

- 준비: 2011년 1~3월
- 월보발간: 2011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간, 12월은 통합호를 발간
 - 발행부수 : 각각 2,590부

□ 뽕은감

- 준비: 2011년 1~3월
- 월보발간: 2011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간, 12월은 통합호를 발간

- 발행부수 : 각각 2,54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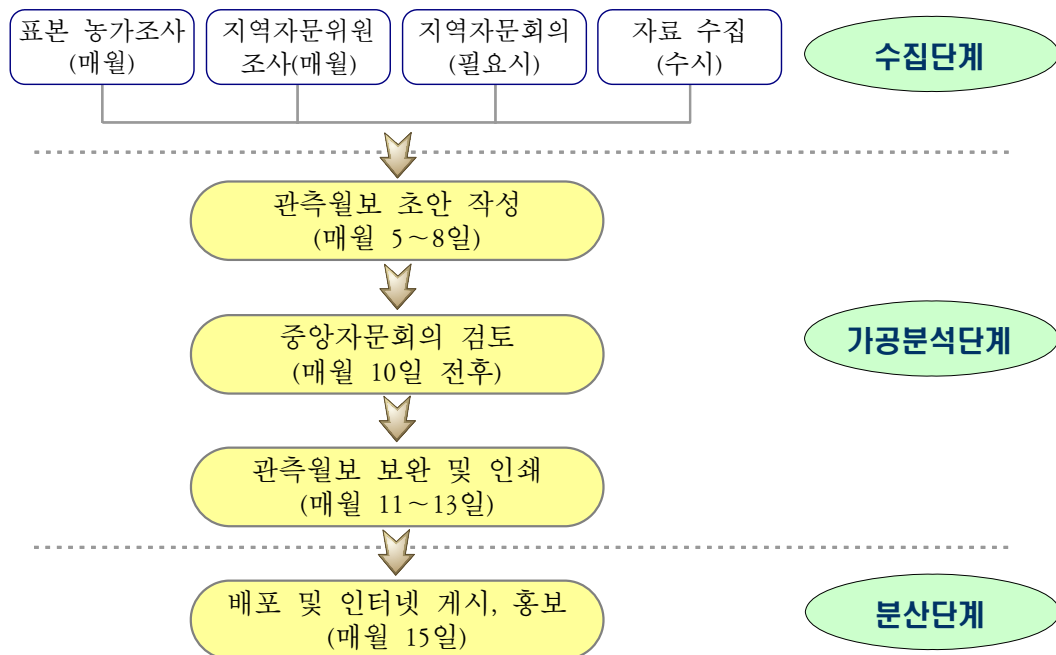
□ 산채류

- 준비: 2011년 1~3월
- 월보발간: 2011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5, 6, 8, 9월 15일에 발간, 12월은 통합호를 발간
 - 발행부수 : 각각 2,328부

□ 조경수

- 준비: 2011년 1~2월
- 월보발간: 2011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주요 판매시기 전 3, 6, 8월 15일에 발간, 12월은 통합호를 발간
 - 발행부수 : 각각 2,300부

2.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3. 관측결과와 분산체계

- 임업관측보 우편 발송
 - 월보(매월 15일 우송)
 - 산림청,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표본농가, 지역자문위원, 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지 농협, 기타
- 전문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 게시
 - KBS 텔레비전, 라디오 등
 -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http://www.forestinfo.or.kr>)
 - 각종 전문지에 게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 인터넷발송

3.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결과

3.1.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표본농가 정비

☐ 밤

- 표본농가 260호(예비농가 50호 포함)를 유지하였으며, 주산지를 고려하여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24명을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최근 3년간 평균 응답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자문 및 통신원 2명 교체.

☐ 표고버섯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73호 포함)를 유지하되 톱밥배지 재배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원목재배를 폐업하는 34명을 제외하고 톱밥배지 재배자를 추가하였음. 지역자문위원 34명 유지.

□ 대추

- 표본농가 120호(예비농가 20호 포함)로 표본농가 17명을 제외하였으며, 지역자문위원 22명 가운데 지역, 연령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6명을 교체하고 1명을 제외함.

□ 뽕은감

- 표본농가 118호(예비농가 20호 포함)로 2호 증가(10명 제외 12명 보완), 지역자문위원 30명으로 운영하였음.

□ 산채류

- 표본농가 431호(예비농가 40호 포함)로 비재배자 9명을 제외하였으며, 지역자문위원 13명을 유지 운영하였음.

□ 조경수

- 표본농가는 작년 선정된 350 농가 중 홍가시 농가를 제외하여 241호(예비농가 50호 포함)로 축소 운영함. 지역자문위원 22명(추가 6명, 삭제 1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음.

3.2. 중앙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 중앙자문위원 선정

- 임업관측(밤)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밤: 중앙자문위원 14명 중 1명을 교체
-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의 경우,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사정에 밝고 경력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 15명 중 1명을 교체

- 임업관측(대추)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대추: 중앙자문위원 10명 중 2명을 교체
- 임업관측(뽕은감)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뽕은감: 중앙자문위원 13명 중 1명을 교체
- 임업관측(산채류)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산채류: 중앙자문위원 16명 중 1명을 교체
- 임업관측(조경수)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1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확대 개편하였음.
 - 조경수: 중앙자문위원 15명 중 4명 추가

□ 중앙자문위원회 운영

-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검증하는 등 관측월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업 종사자, 산림조합중앙회, 산지농협대표, 수출입조합 대표,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였음.
 - 중앙자문위원회는 월보 발행 월의 10일을 전후로 개최하여 발행예정 월보의 내용을 검토.



표 2-1. 2011년도 품목별 임업관측 중앙자문위원

구분	밤(14명)	표고버섯(15명)	대추(12명)
정 책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재 배	조좌연 (한국밤재배자협회장) 임종택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과장) 이기호 (순천시 울림회장) 김의충 (소태밤농원 대표) 김영신 (만성농장)	서홍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심광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의용 (전국툰밤표고재배자협회) 이정무 (부농표고)	김영식 (임당 대추농장) 이성희 (청도 산동대추연구회 회장) 김두출 (군위군 대추작목반 대표) 박대희 (전 보은대추연합회장) 박재봉 (한길 대추농장)
유 통	양길원 (중부시장 신평상회) 오종성 (부여밤영농조합대표) 박찬균 (농협밤전국협의회장)	고홍천 (농협버섯협의회장) 민종우 (동화청과) 백홍준 (장흥유치농협)	이준행 (한국농산)
무 역	차우진 (농림수출입조합) 정춘섭 (산림조합중앙회)	우수동 (농수산물유통공사) 박진출 (대일상사)	한재선 (동광물산)
기 술	황명수 (국립산림과학원)	박원철 (국립산림과학원) 유창현 (산림버섯연구소 고문) 박홍수 (산림버섯연구소장)	조기동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박영기 (국립산림과학원)

구분	뽕은감(13명)	산채류(17명)	조경수(15명)
정 책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계장 산림청 품목담당자
재 배	이상길 (영동감연구회) 임정규 (완주감연합회장) 유인상 (영암 개인농장) 조정환 (산청 개인농장) 박성길 (매전감가공연합회장)	최성규 (인제군 곰취영농조합법인) 신차석 (태백시 산채연구회) 박행규 (청산임산) 강명수 (신선대고사리작목반) 윤재철 (할매고사리연구회) 조남상 (용문산산더덕) 김종우 (뒷골고사리)	최등원 (완주소양철쭉영농조합) 정근성 (전의조경수영농조합) 김훈성 (고창 개인농장) 김외식 (옥천이원묘목조합) 김정인 (조경수협회 전남동부지 회장) 임해진 (강진 농업법인회사 우림) 손주희 (강릉 에코피아 농업회사) 안형민 (정읍 내장조경)
유 통	김진영 (경동시장 광성상회)	박세봉 (남해군 창선농협) 윤문식 (해성상회) 김혁수 (동형성농협 청일지점) 김민수 (대북상회) 최승호 (동북상회)	신경준 (장원조경) 최귀남 (전남조경수유통영농조합 법인)
무 역	김현수 (경동시장 우리상회)		
기 술	조두현 (상주감시험장) 조기동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박부인 (상주꽃감연합회 고문)	김종환 (강원도 특화작물시험장) 김재성 (국립산림과학원)	김재성 (국립산림과학원) 윤태승 (수프로)

주: 밑줄은 교체된 중앙자문위원 명단임.

3.3. 관측월보 발간 부수 및 배포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6개 품목으로 발간되었으며, 2011년도 발간된 임업관측월보는 107,678부로서 2010년의 93,506부에 비해 14,172부가 증가하였음.
- 기존품목 중 표본임가의 월보 수요 증가로 계획보다 추가 발간된 품목 발생.
- 12월에 종합호 발간 배포

표 2-2. 임업관측월보의 월별 품목별 발간부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밤	-	-	3,876	-	3,876	-	3,876	3,876	3,876	3,876	3,876	1,725	28,857
표고버섯	-	-	3,597	3,597	3,597	3,597	3,597	-	3,597	3,597	3,597	1,500	30,276
대 추	-	-	-	2,590	-	-	-	2,590	2,590	2,590	2,590	1,125	14,075
뽕 은 감	-	-	-	2,541	-	-	-	2,541	2,541	2,541	2,541	1,050	13,830
산 채 류	-	-	-	2,328	2,328	2,328	-	2,328	2,328	-	-	1,125	12,765
조 경 수	-	-	2,300	-	-	2,300	-	2,300	-	-	-	975	7,875
합계	-	-	9,773	11,056	9,801	8,225	7,473	13,635	14,932	12,604	12,604	7,500	107,678

- 임업관측월보는 생산시기 및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표지디자인 및 내용구성 스타일을 독자위주로 바꾸었고, 산림청, 지역 산림조합,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 주요 기관과 임업관측사업에 참여하는 표본임가 및 자문위원,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지역 생산자단체 등에게 배포되었음.

표 2-3. 임업관측월보의 품목별 배부처

단위: 배부수

배부처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계
□ 산림청	105	129	56	56	83	39	468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13	198	94	112	99	53	669
□ 표본농가	2,597	2,652	1,848	1,648	1,633	919	11,297
□ 지역산림조합	5,656	4,995	2,182	2,190	3,119	1,205	19,347
□ 산림조합중앙회	75	35	56	56	22	36	280
□ 임업후계자협회		69					69
□ 자문위원	1,905	2,103	1,436	1,441	149	1,366	8,400
□ 지방자치단체	4,907	7,986	2,527	2,527	3,119	1,573	22,639
□ 지역단위농협	4,207	1,716	835	838	0	715	8,311
□ 농업기술센터		5,433	1,803	1,794	2,677	1,580	13,287
□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3,409	3,107	1,642	1,833	1,681	297	11,969
□ 지역생산자단체		798					798
□ 기 타	5,885	1,056	1,597	1,335	183	92	10,148
계	28,857	30,276	14,075	13,830	12,765	7,875	107,678

3.4. 임업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관측월보와 연차 전망 등 단기 및 중·장기 관측사업 결과를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관측월보를 인쇄하기 편리한 화면으로 개선
 - 홈페이지에 관측월보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 및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본 연구원의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링크하여 바로 임업관측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3.5. 관측결과에 대한 홍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업전망 2011」에서 임산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발표내용은 인터넷에 게시되었고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으로 제공되었음.

- 밤 재배 순회 교육, (사)한국 밤 재배자협회 워크숍을 포함해 표고버섯 연찬회 등에서 주요 교육 자료로서 그리고 홍보자료로서 활용되었음.
- 관측월보 내용은 발행월의 20일을 전후하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9개 전문지에 게재되었음.

3.6. 중장기 관측

- 2011년 농업전망대회(2011.1.)에서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에서 중장기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음.

3.7. 관측품목 소비자 조사

- 뽕은감, 대추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및 구매행태 조사
 - 소비자조사: 뽕은감, 대추(2011. 9. 27~30)
 - 관측월보에 게재: 뽕은감(11월호), 대추(11월호)

3.8. 관측품목 재배자 만족도조사

- 관측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음.
 - 조사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 조사기간: 2011. 11. 28~12. 2

3.9.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1. 11. 11)
- 과 제 명: 2011년 임업관측사업
- 주 제: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2011년 11월 11일 (금) 15:00~18:00
-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자: 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 유통전문가, 종균 전문가, 재배자 등 40여명

○ 발표내용:

발표주제	발표자
표고버섯 수급동향과 전망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고버섯 수출 확대의 과제	우수동(농수산물유통공사)
표고버섯 종균개발의 현황과 과제	박원철(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 종균유통의 현황과 과제	박홍수(산림버섯연구소)
표고버섯 유통의 현황과 과제	민종우(동화청과)
표고버섯 산업 지원 정책과 방향	김원수(산림청)

- 토론자

- 이정무(부농표고)
- 심광택(전국표고재배자연협회)
- 정의용(전국톱밥표고재배자협회)
- 구창덕(충북대학교 산림학과)
- 김재성(국립산림과학원 녹색경제연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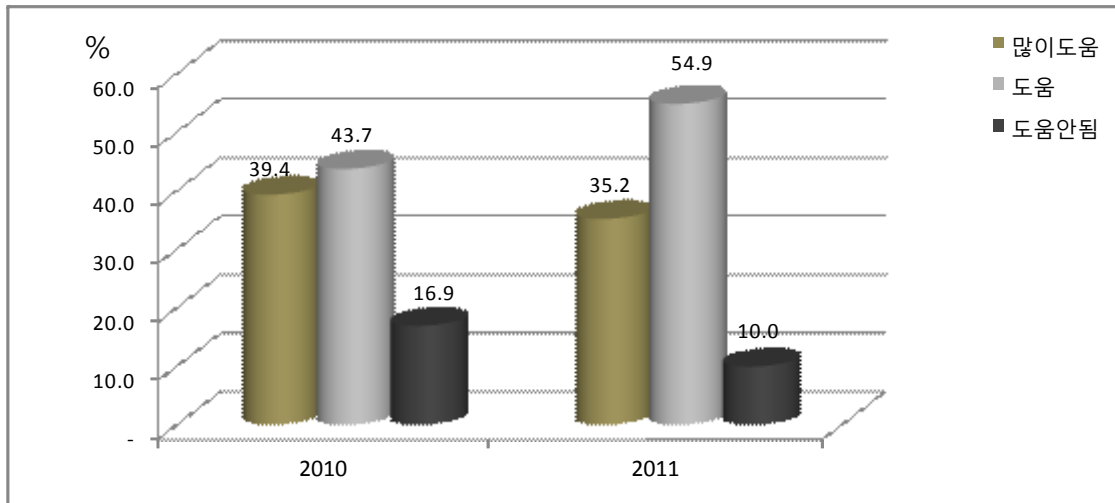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4.1. 의식조사 개요

- 임업관측 월보발간에 대한 재배자 의식조사는 지역자문위원(통신원 포함) 및 표본농가 총 600명(품목별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전화조사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참리서치’에서 진행하였음.
- 재배자 의식조사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 부문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품목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품목별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는 2010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신뢰수준의 변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등 주요 특징들에 대해 기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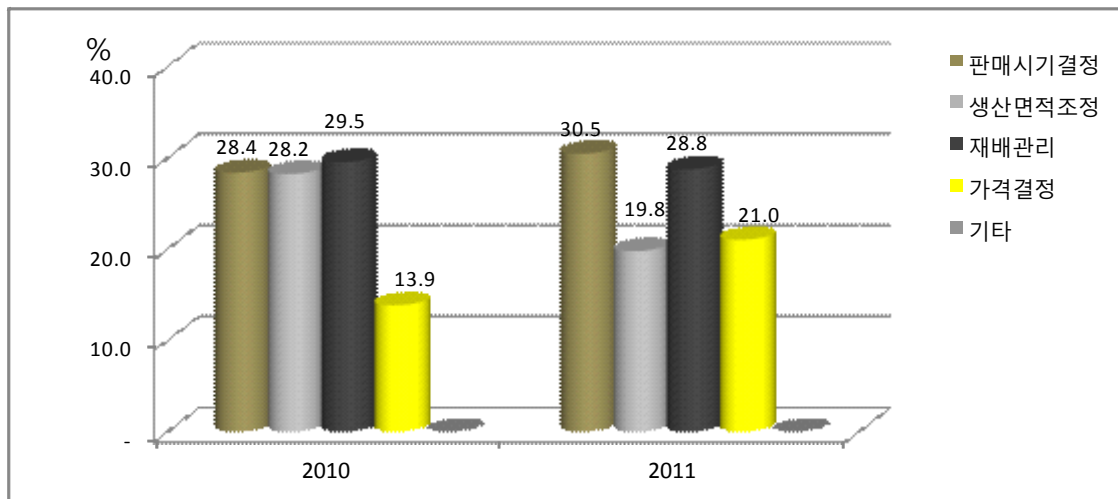
4.2. 의식조사 결과(종합)

-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 정도(6개 품목 평균)
 - 경영 의사결정에 임업관측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5.2%,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4.9%,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10.0%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해 2010년 83%보다 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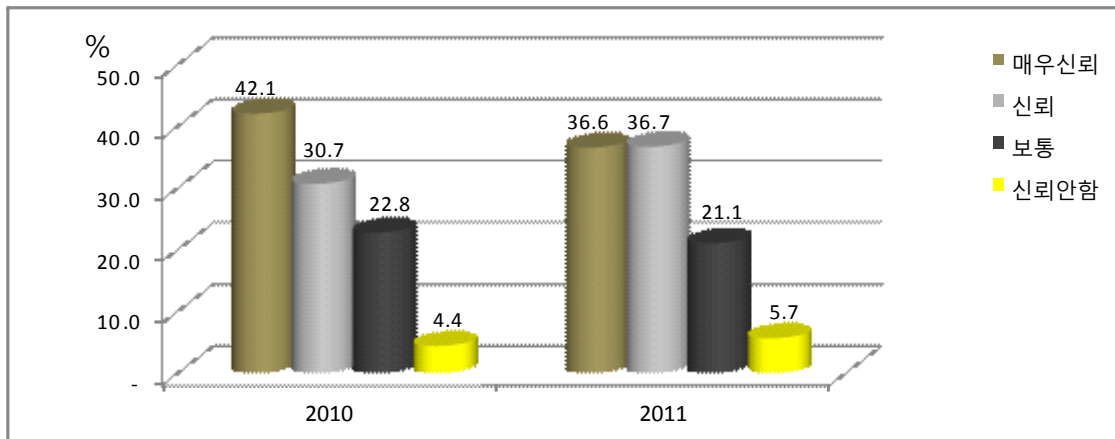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 부문(6개 품목 평균)

-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판매시기 결정’이 30.5%, ‘재배관리’가 28.8%, ‘가격결정’ 21.0%, ‘생산면적 조정’이 19.8%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생산면적 조정’ 부문의 기여율은 낮아진 반면, ‘가격결정’ 부문의 기여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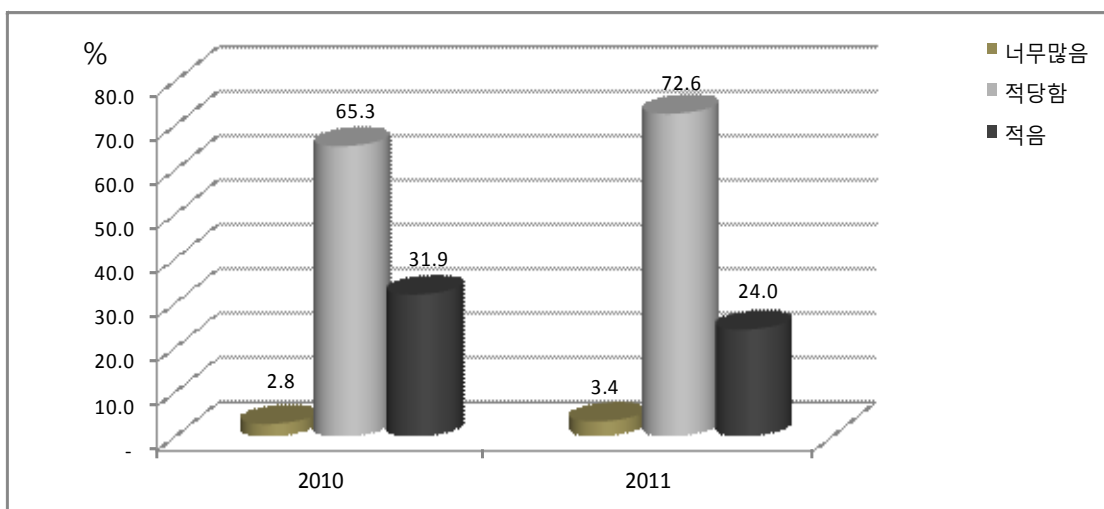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6개 품목 평균)

- 관측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매우 신뢰’가 36.6%, ‘신뢰’가 36.7%, ‘보통’ 21.1%, ‘신뢰하지 않음’이 5.7%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산채류와 조경수에 비해 밤, 표고, 대추, 뽕은감 등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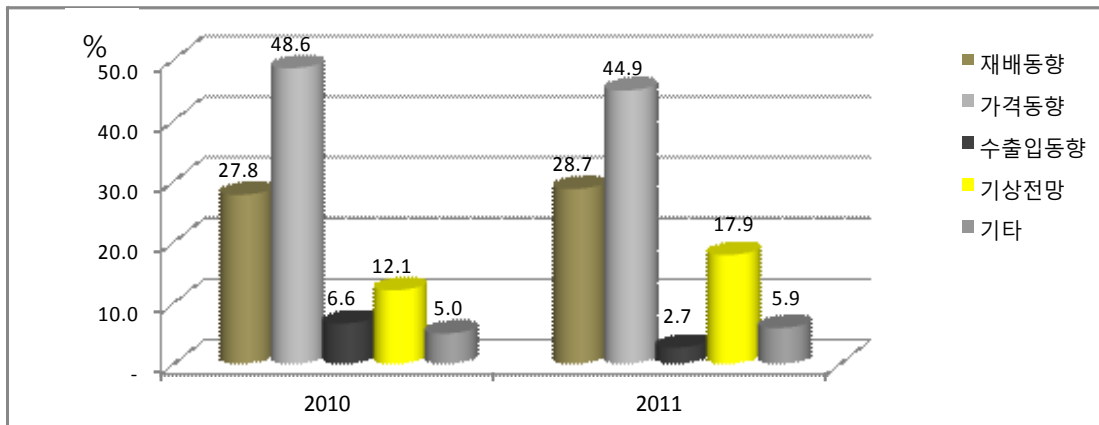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6개 품목 평균)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너무 많음’ 3.4%, ‘적음’이 24.0%로 나타남.
- 적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3회 발간되는 조경수였으며, 뽕은감, 대추, 산채류가 다음순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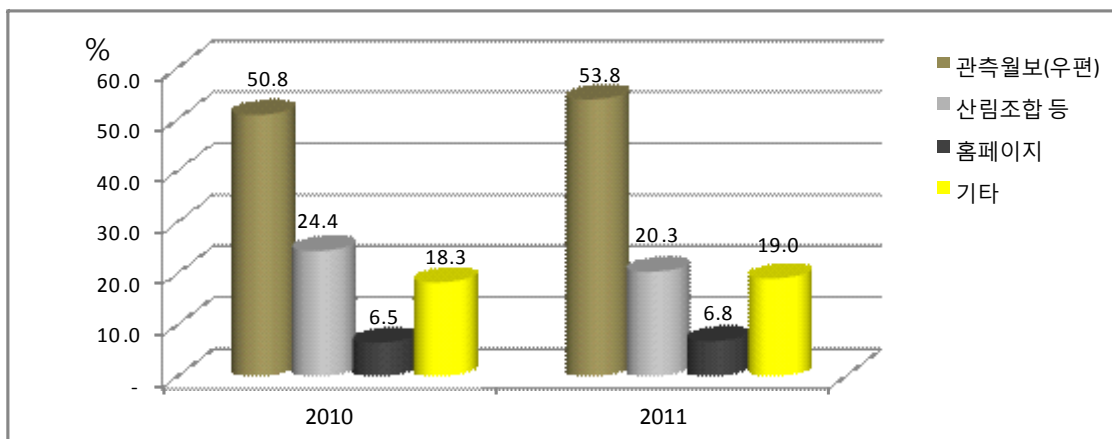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6개 품목 평균)

- 관측월보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가격동향’ 44.9%, ‘재배동향’ 28.7%, ‘기상전망’ 17.9%, ‘수출입동향’ 2.7%로 가격동향과 재배동향에 대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기상전망’ 부문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입동향’과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6개 품목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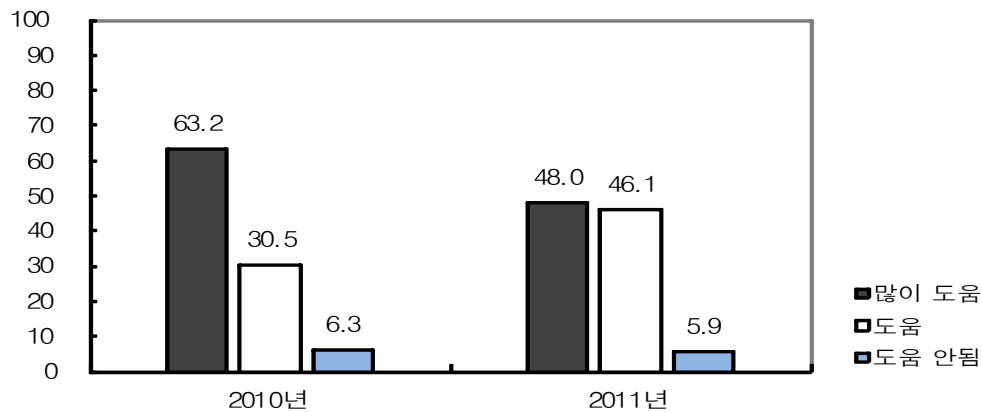
- 현재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 53.8%, 산림조합 20.3%, 홈페이지 6.8%, 기타 19.0%로 나타나 2010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는 표고버섯, 뽕은감, 조정수 등의 ‘관측월보’를 통한 관측정보 접근도가 낮아졌으며, 산림조합, 조정수협회 등을 통한 접근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3. 밤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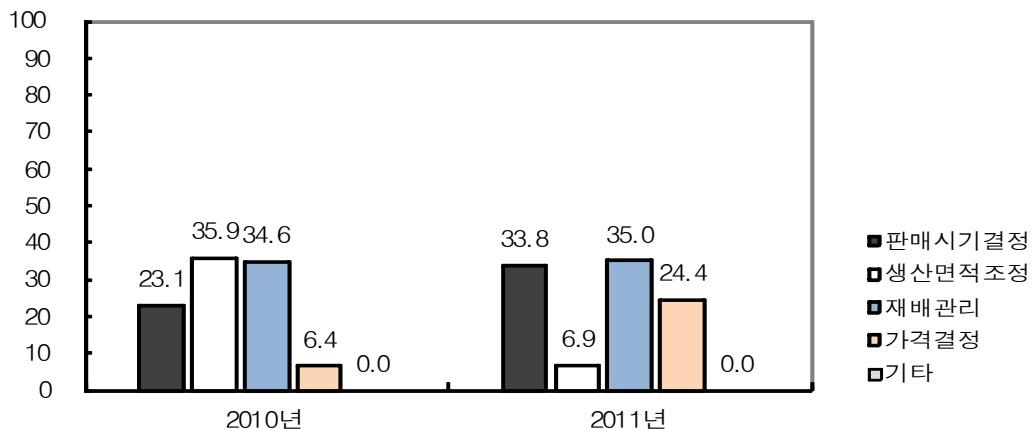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임업관측(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8.0%,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6.1%,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5.9%로 94.1%가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5.1%p 감소하였으나,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5.6%p 증가하여 전체적인 도움 정도는 질적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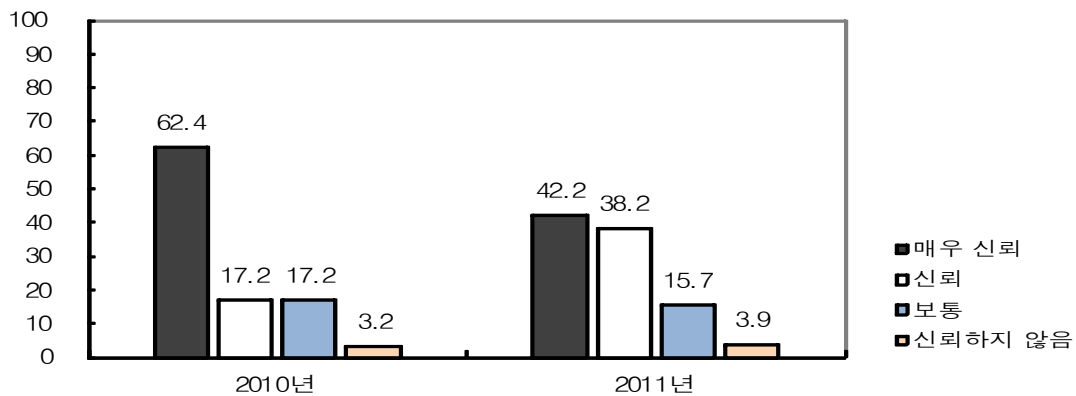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밤)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배관리’ 35.0%, ‘판매시기 결정’ 33.8%, ‘가격결정’ 24.4%, ‘생산면적 조정’ 6.9%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생산면적 조정’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판매시기 결정’, ‘가격결정’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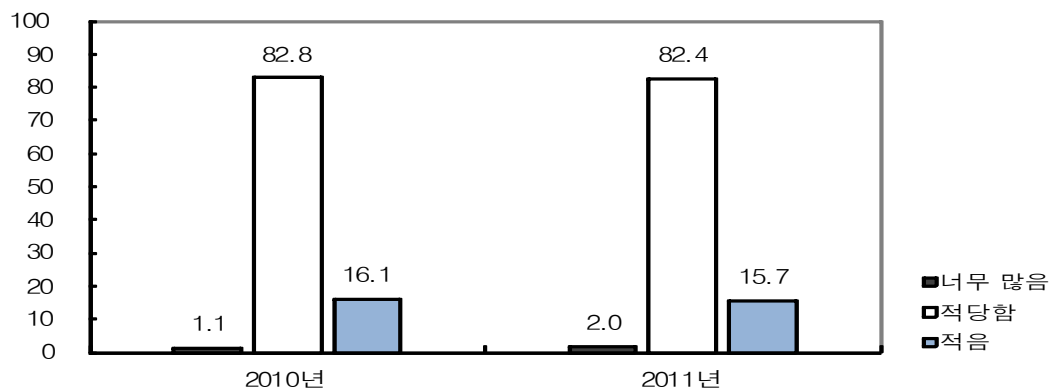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밤)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매우 신뢰’가 42.2%, ‘신뢰’가 38.2%, ‘보통’ 15.7%, ‘신뢰하지 않음’이 3.9%로 전체의 80.4%가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높은 편임.
- 2010년과 비교하여 ‘매우 신뢰’는 20.2%p 감소하였지만 ‘신뢰’가 21.0%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은 다소 낮아졌음. 이는 2011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생산량 추정 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지속적인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지역전문가 의견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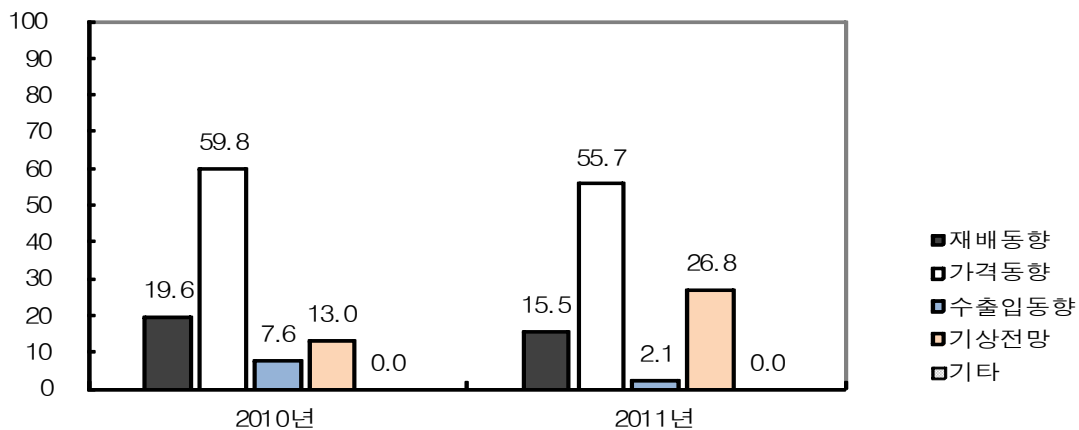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밤)의 발간횟수에서 현행 7회(3,5,7,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82.4%, ‘적다’는 의견이 15.7%, ‘너무 많다’는 의견이 2.0%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10년과 비교하여 발간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0.4%p 감소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 큰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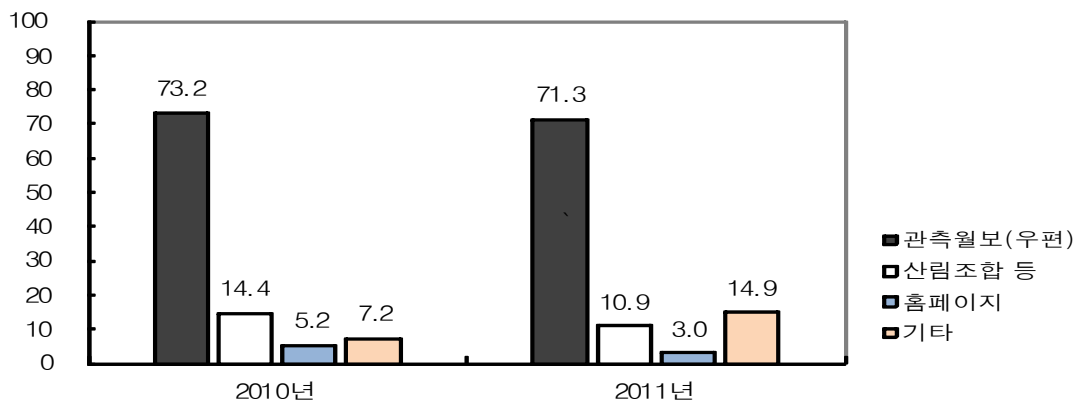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밤)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가격동향’ 55.7%, ‘기상전망’ 26.8%, ‘재배동향’ 15.5%, ‘수출입동향’ 2.1%로 가격동향과 기상전망에 대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기상전망’ 부문 활용 비율이 1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봄철 이상저온과 잦은 비 등으로 2011년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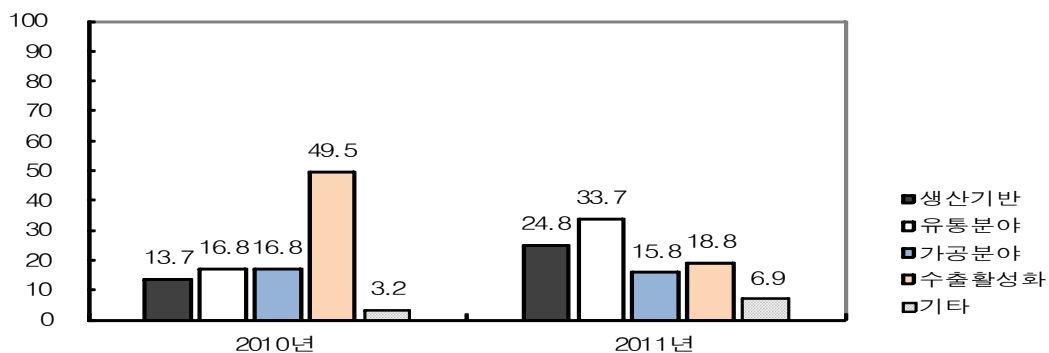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밤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은 ‘관측월보(우편송부)’ 71.3%, ‘산림조합’ 10.9%, ‘홈페이지’ 3.0%, 기타 TV와 농민신문 14.9%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관측월보(우편송부)에 의한 정보 접근은 다소 낮아진 반면, 기타 TV나 신문 매체를 통한 관측정보 접근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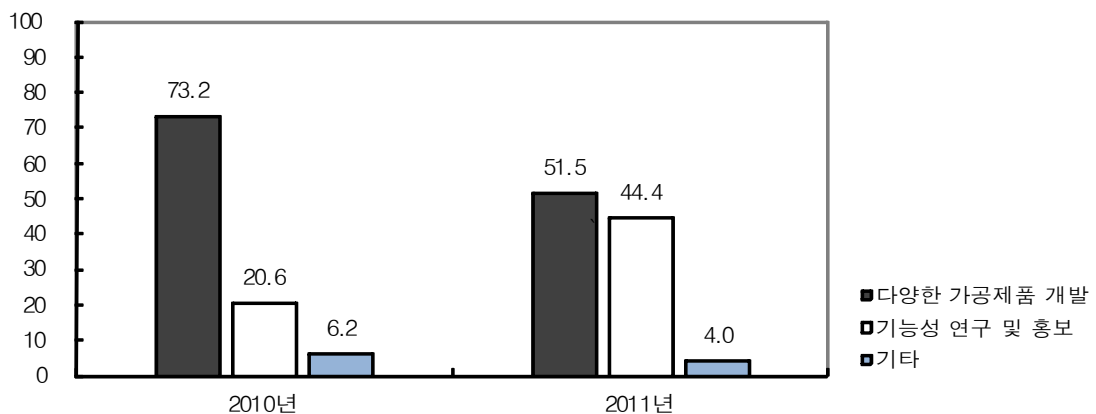
○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분야’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기반’ 24.8%, ‘수출활성화’ 18.8%, ‘가공분야’ 15.8%로 나타남.
- 2010년과 달리 정책 우선순위에서 ‘수출활성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감소한 반면, ‘유통분야’ 및 ‘생산기반’ 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은 금년 기상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생산비의 상승으로 임가소득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밤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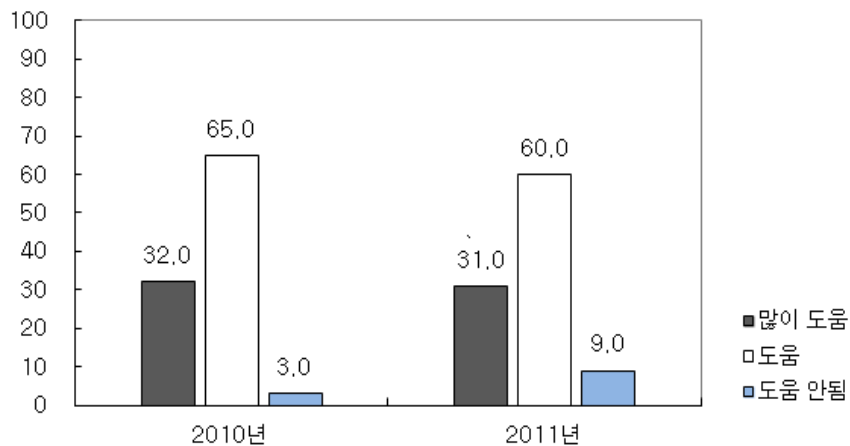
- 밤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51.5%, 밤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44.4%, 기타가 4.0%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밤의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는 감소한 반면,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요구가 2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가들이 제품 연구개발과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4. 표고버섯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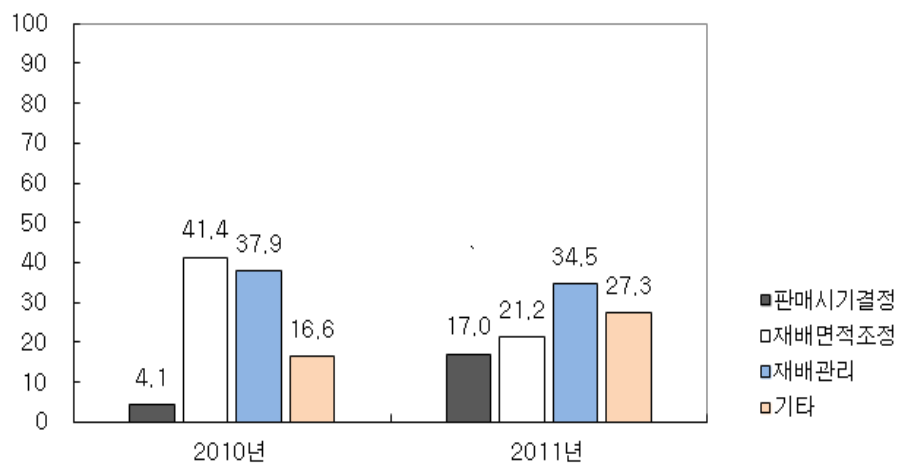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임업관측(표고버섯)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1.0%,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0.0%,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9.0%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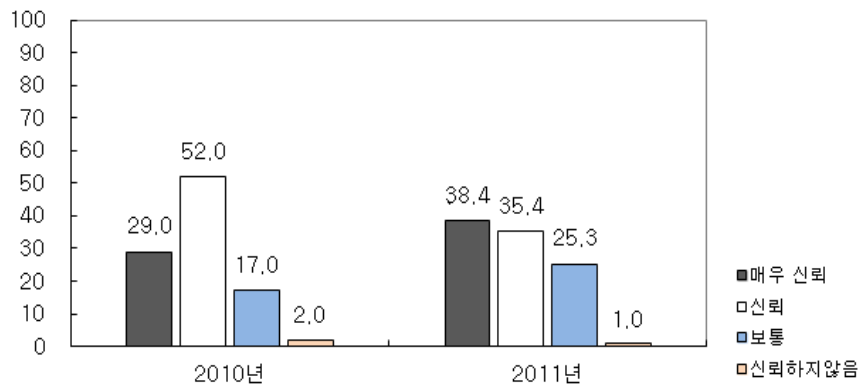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기여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재배관리’ 34.5%로 1순위, ‘기타’ 27.3%로 2순위로 나타남. ‘재배면적조정’이 21.2%로 3순위, ‘판매시기결정’이 17.0%로 4순위임.
- 2010년과 비교하여 ‘재배면적조정’ 부문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고 ‘판매시기결정’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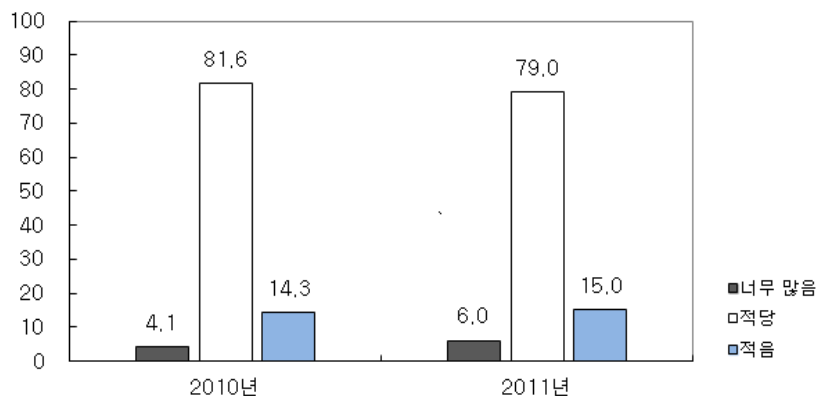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표고버섯)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가 38.4%, ‘조금 신뢰’가 35.4%, ‘보통’ 25.3%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음.
- 2010년과 비교하여 신뢰 비율이 16.6%p 감소하였으나 매우 신뢰 비율이 9.4%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보통이 8.3%p 증가하여 앞으로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표고버섯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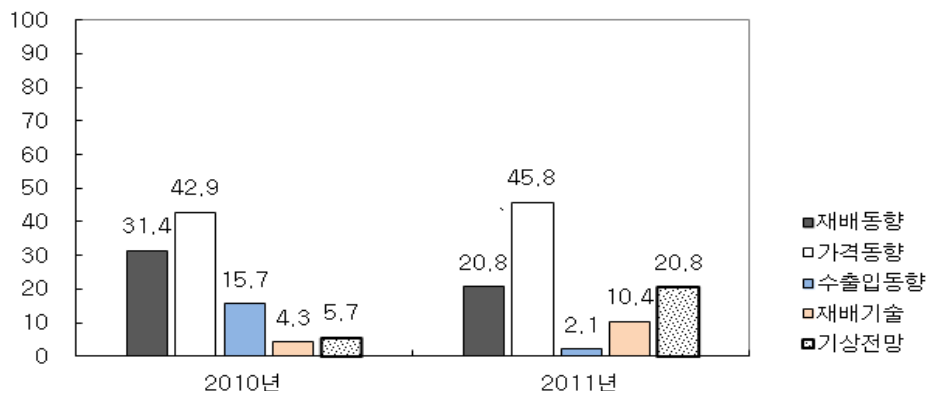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표고버섯)의 발간횟수에 대해서는 현행 8회(3,4,5,6,7,9,10,11월)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6.0%, ‘적당하다’는 의견이 79.0%, ‘적다’는 의견이 15.0%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10년과 비교하여 발간횟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2.6%p 감소하고, ‘많다’는 의견이 1.9%p 증가 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발간횟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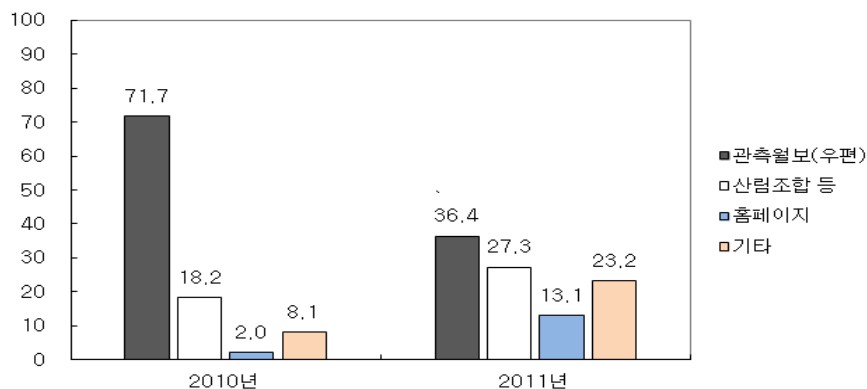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가격동향’ 45.8%, ‘재배동향’ 20.8%, ‘기상전망’ 20.8%, ‘재배기술’ 10.4%, ‘수출입동향’ 2.1%로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가격동향’, ‘기상전망’, ‘재배기술’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였는데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과 재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재배동향’, ‘수출입동향’ 등에 대한 활용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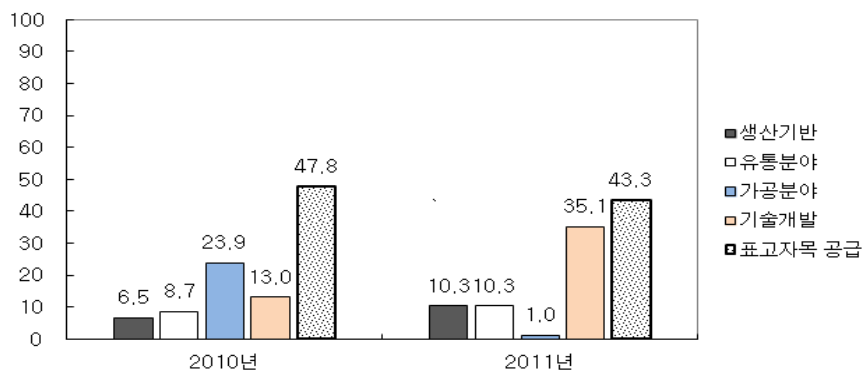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표고버섯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36.4%, ‘지자체, 산림조합, 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서’가 27.3%, ‘기타’가 2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13.1%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산림조합과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접근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우편으로 받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음. 기타는 작목반이나 지인을 통해 접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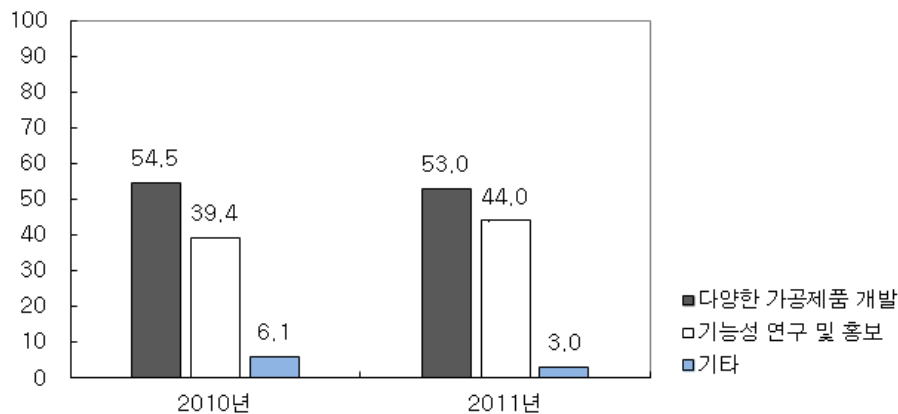
○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는 ‘표고자목의 공급방안 마련’이 43.3%로 1순위, ‘기술개발 분야’가 2순위로 나타났으며 가공, 유통, 생산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게 나타남.
- 2010년에 이어 표고자목 공급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종균과 재배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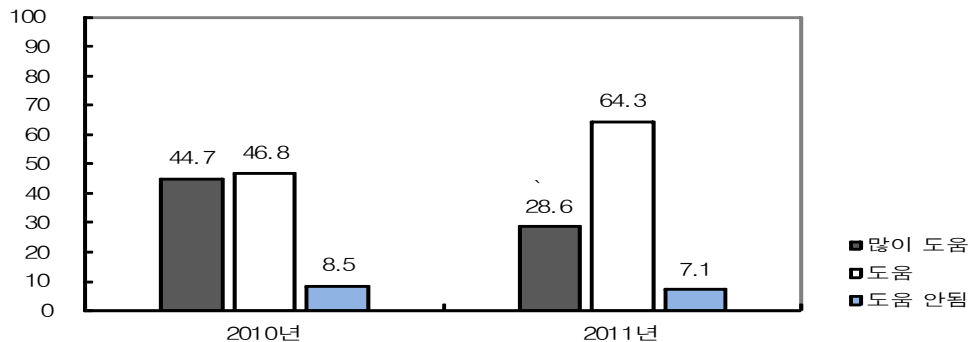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53.0%, ‘표고버섯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 44.0%, ‘기타 (판로개척 등)’ 3.0%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표고버섯의 기능성을 부각시키는 가공식품 개발로 소비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5. 대추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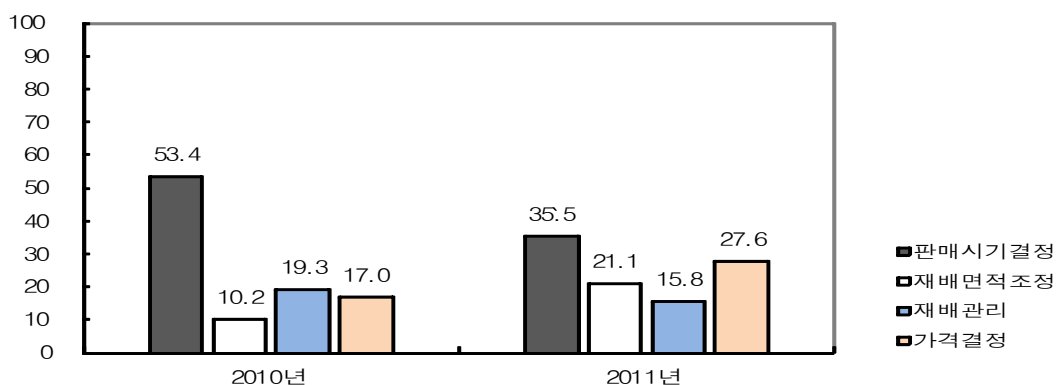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서 임업관측(대추)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28.6%,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4.3%,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7.1%로 전반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16.1%p 감소하였으나,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17.5%p 증가하여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율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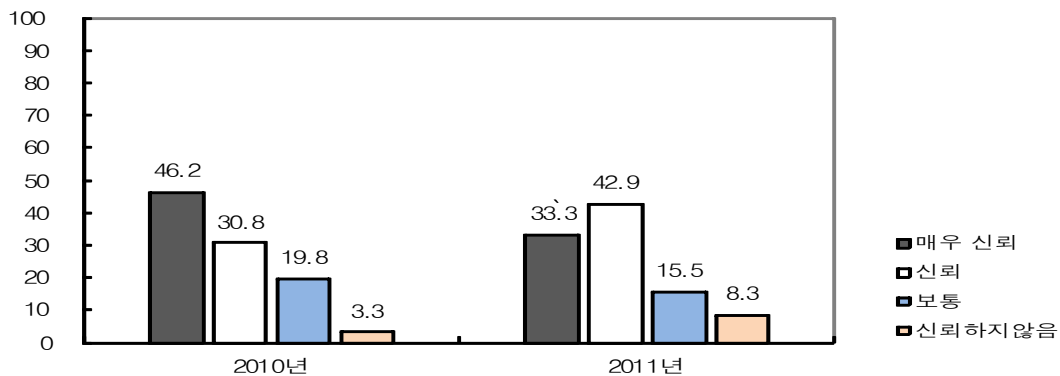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대추)가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판매시기 결정’이 35.5%, ‘가격결정’이 27.6%, ‘재배면적 조정’이 21.1%, ‘재배관리’가 15.8%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판매시기결정’ 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재배면적 조정’ 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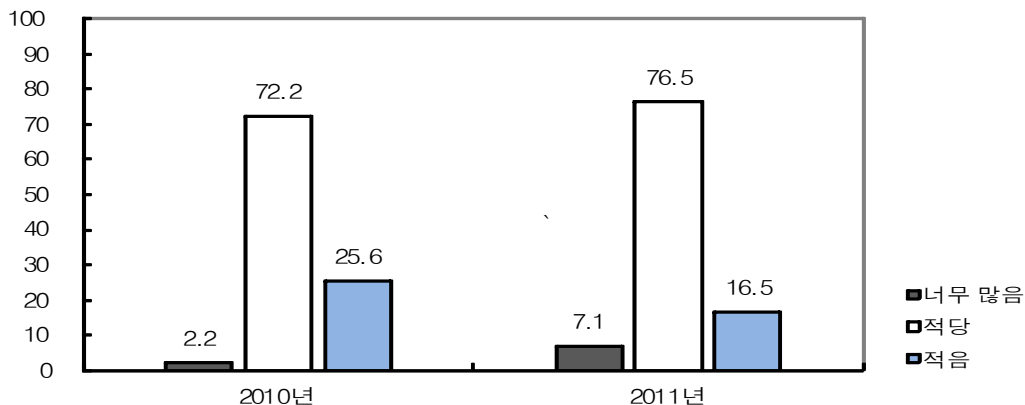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대추)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매우 신뢰’가 33.3%, ‘신뢰’가 42.9%, ‘보통’ 15.5%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매우 신뢰’ 비율이 12.9%p 감소하였으나, ‘신뢰’ 비율이 12.1%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뢰하지 않음’ 비율이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대추 재배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통신원 보강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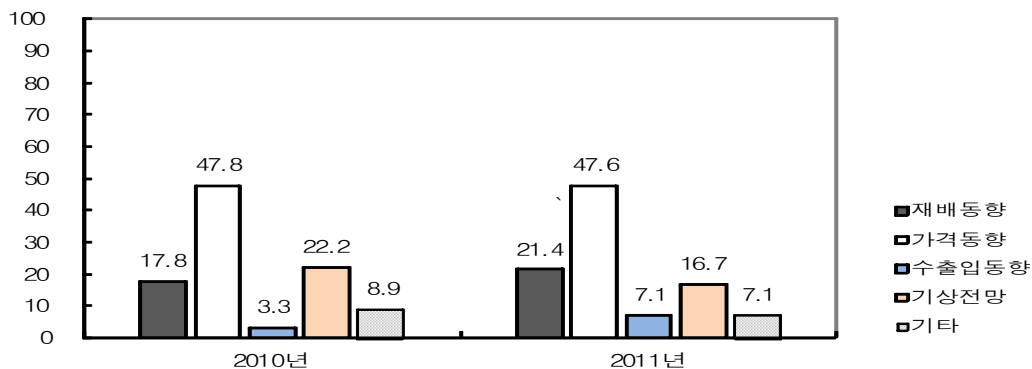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대추)의 발간횟수는 현행 5회(4,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6.5%, ‘적다’는 의견이 16.5%, ‘너무 많다’는 의견이 7.1%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너무 많다’는 의견이 4.9%p 증가하였으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4.3%p 증가한 76.5%로 나타나 현행 월보 발간횟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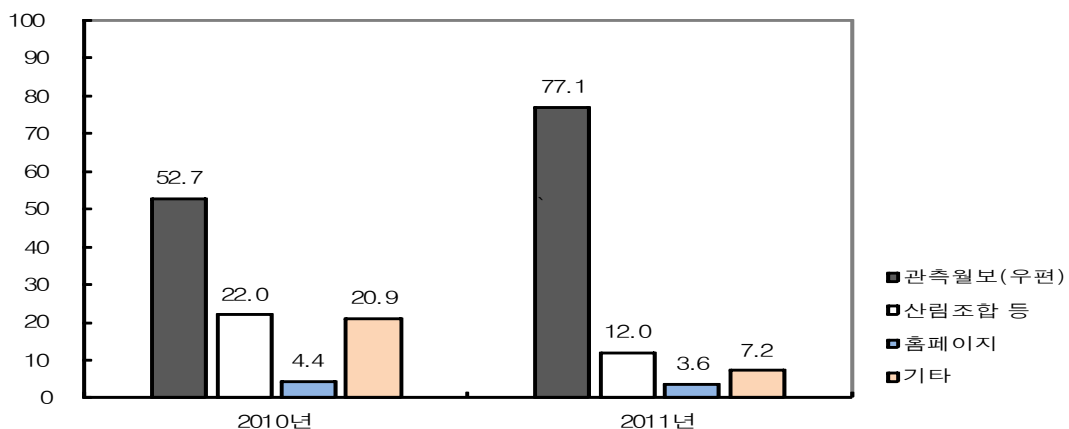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대추)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가격동향’ 47.6%, ‘재배동향’ 21.4%, ‘기상전망’ 16.7%, ‘수출입동향’ 7.1%로 가격동향 및 재배동향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수출입동향’의 활용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최근 몇 년간 건대추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국내 재고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중국산 건대추 수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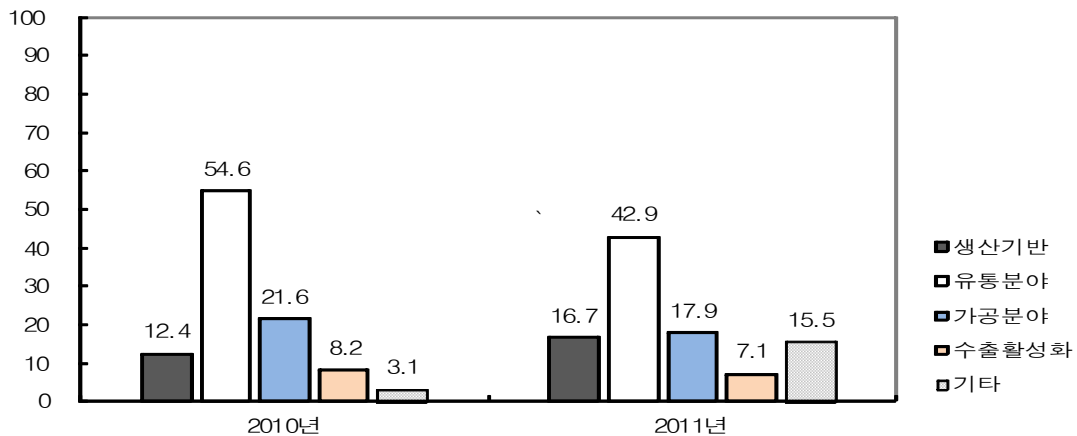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대추 생산자들이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은 ‘관측월보(우편송부)’ 77.1%, ‘지역산림조합 등 지자체’ 12.0%, 산림청·농경연 등의 ‘홈페이지’ 3.6%로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관측월보를 통한 정보 접근비율이 24.4%p 증가하여 관측월보에 대한 임가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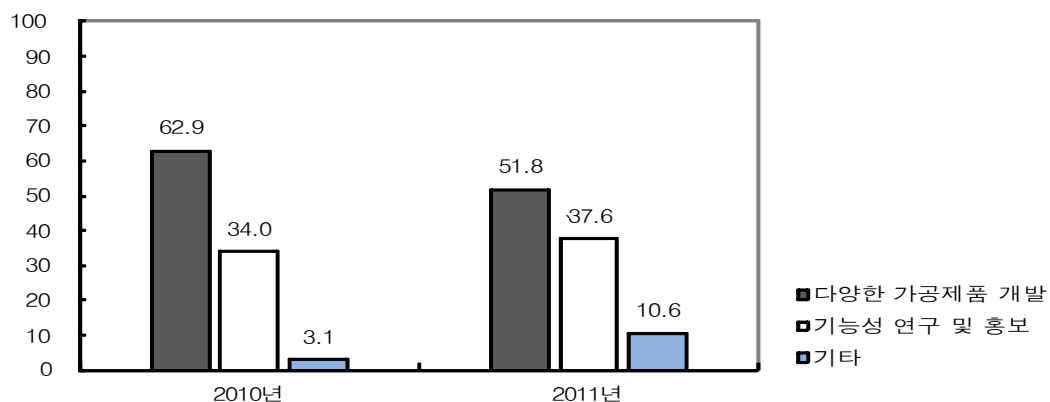
○ 대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대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유통분야’ 42.9%로 1순위, ‘가공분야’ 17.9%로 2순위, ‘생산기반조성’ 16.7%, ‘기타분야’ 15.5%로 각각 3순위, 4순위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비율이 4.3%p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추재배 임가들의 비가림 시설지원 요청 증가에 의한 것이라 판단됨.



○ 대추 소비확대를 위한 정부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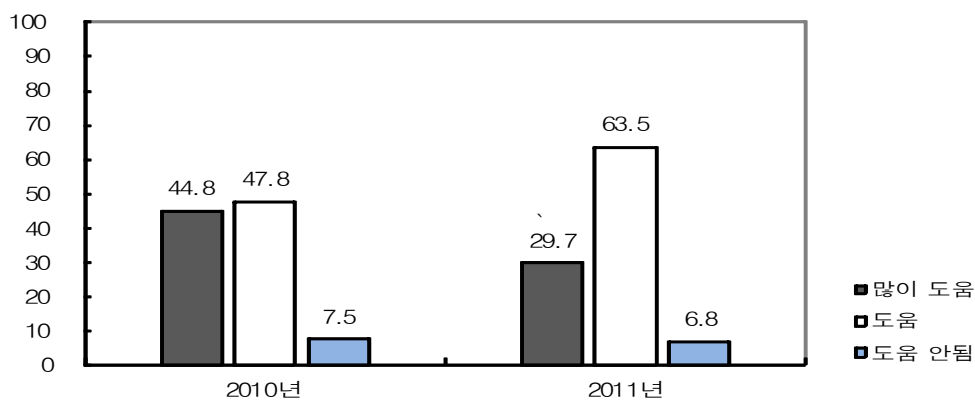
- 대추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51.8%, ‘기능성 연구 및 홍보’ 37.6%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11.1%p 감소하고,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요구가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웰빙 식문화에 부합하는 기능성 연구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6. 뚝은감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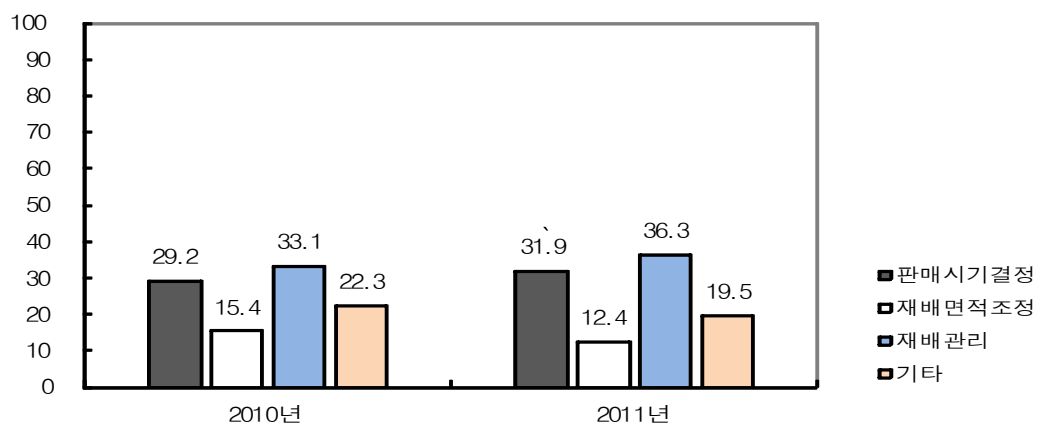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

- 관측정보(뚝은감)의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29.7%, ‘도움이 되었다’는 63.5%, ‘도움이 안 되었다’는 6.8%로 나타나 대체로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많이 도움된다는 의견이 15.1% 감소하였으나,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5.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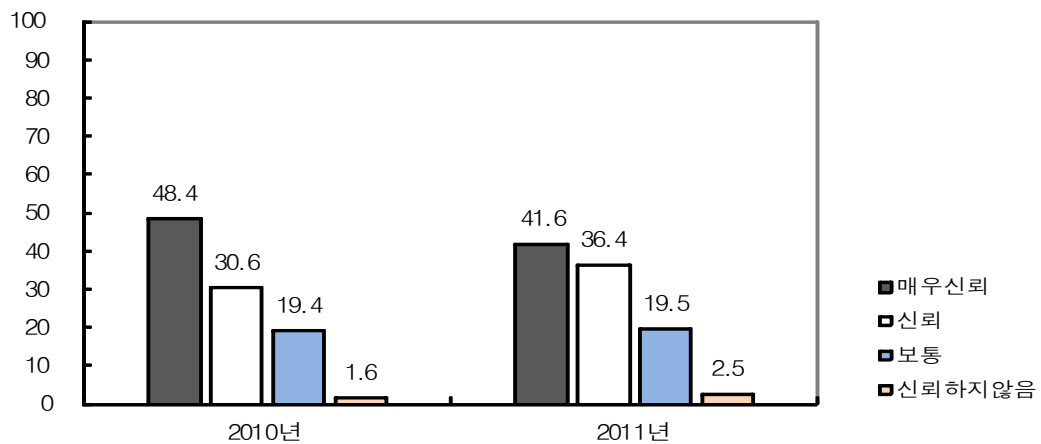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뚝은감)가 경영 의사결정에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재배관리’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 시기 결정’ 31.9%, ‘생산면적 조정’ 12.4%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19.5%로 기상전망 및 가격동향 등으로 나타남.
- 2010년 조사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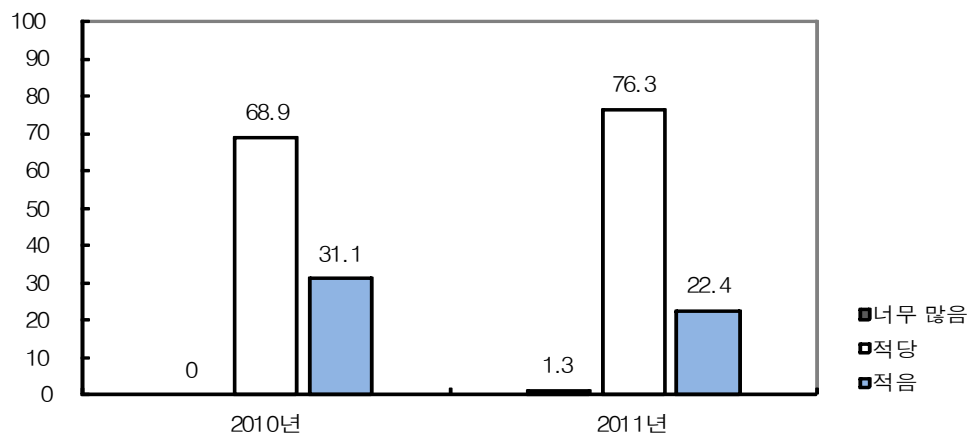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뚝은감)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 41.6%, ‘신뢰’ 36.4%, ‘보통’ 19.5%로 대체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조사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있으므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향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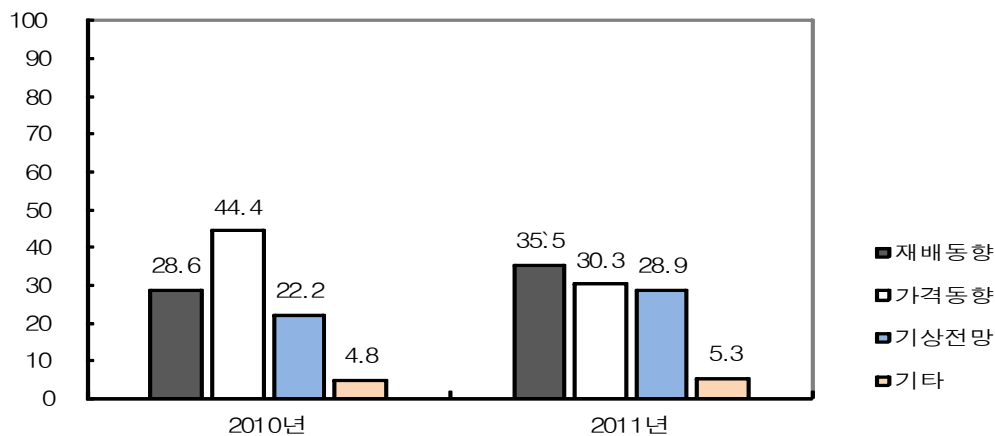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뚝은감)의 발간횟수에서는 현행 5회(4,8,9,10,11월)가 ‘적당하다’는 76.3%, ‘적다’는 22.4%, ‘너무 많다’는 1.3%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10년 조사와 비교하여 발간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8.7%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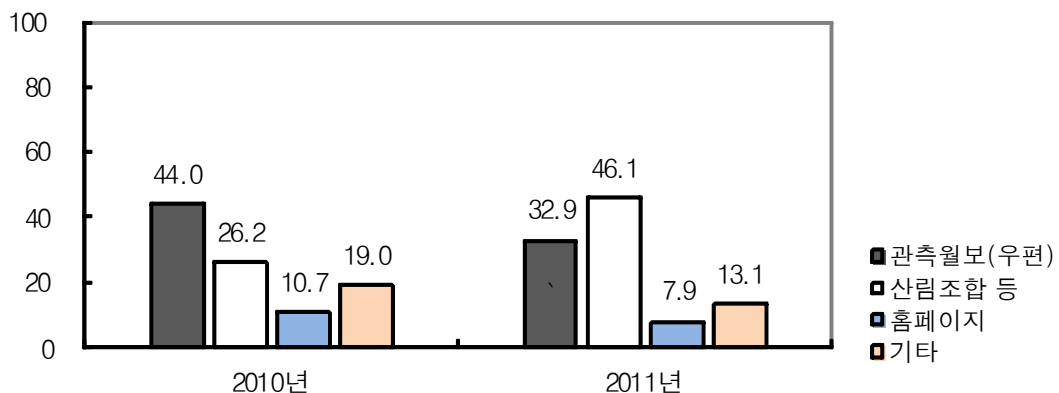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뚝은감)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재배동향’ 35.5%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동향’ 30.3%, ‘기상전망’ 28.9% 순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재배동향과 기상전망 활용 비율이 각각 6.9%,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초 동해피해와 장마, 태풍 등으로 뚝은감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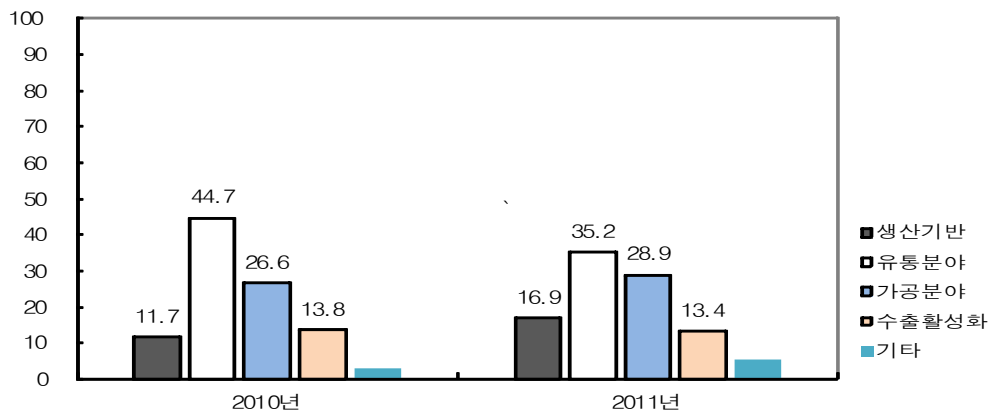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산림조합·지자체’ 등을 통해서 46.1%, ‘관측월보(우편송부)’ 32.9%, 산림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7.9% 순으로 조사되어 주로 우편송부 및 산림조합 및 지자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우편송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산림조합 및 지자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는 비율이 19.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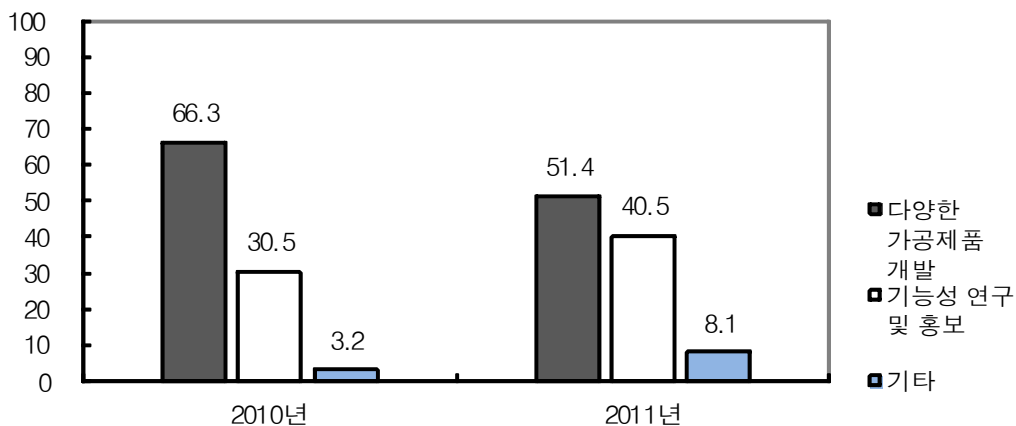
○ 뚝은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뚝은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는 ‘유통지원’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공지원’ 28.9%, ‘생산기반조성’ 16.9%, ‘수출지원’ 13.4% 순으로 조사됨.
- 2010년과 비교하여 가공·유통 및 수출 등 생산 이후의 사업지원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수요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기반 지원 정책수요가 다소 증가함.



○ 뚝은감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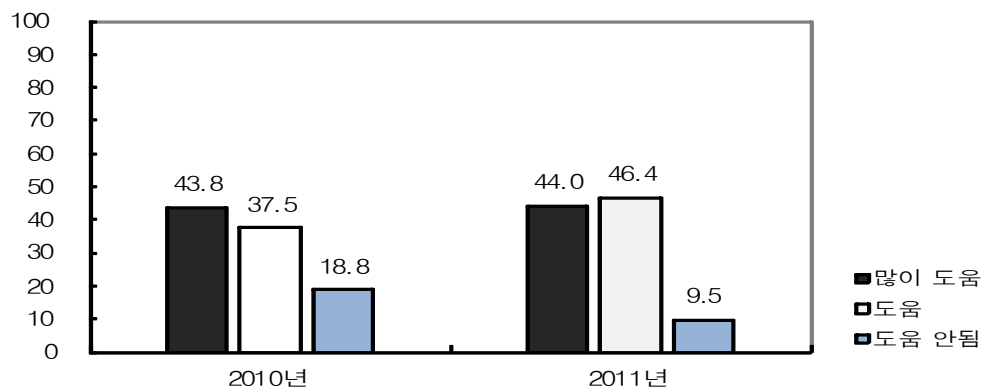
- 뚝은감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51.4%, ‘기능성 연구 및 홍보’ 40.5%, 기타(수출판로개척) 8.1%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10% 증가하였고, 기타 의견(수출판로개척)도 증가하였음. 이는 뚝은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뚝은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4.7. 산채류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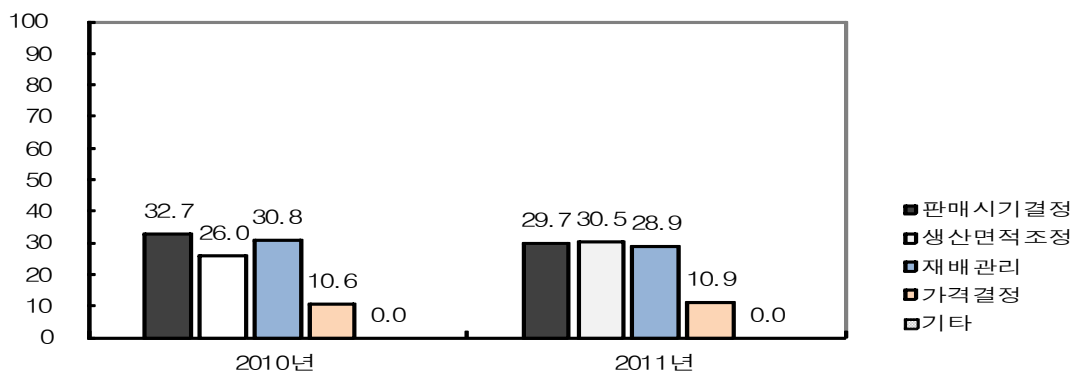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

- 관측(산채류)정보의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4.0%,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46.4%, ‘도움 안됨’ 9.5%로 나타나 대체로 관측정보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0.5%로 나타남.
- 발간 첫해였던 2010년과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증가한 반면,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은 다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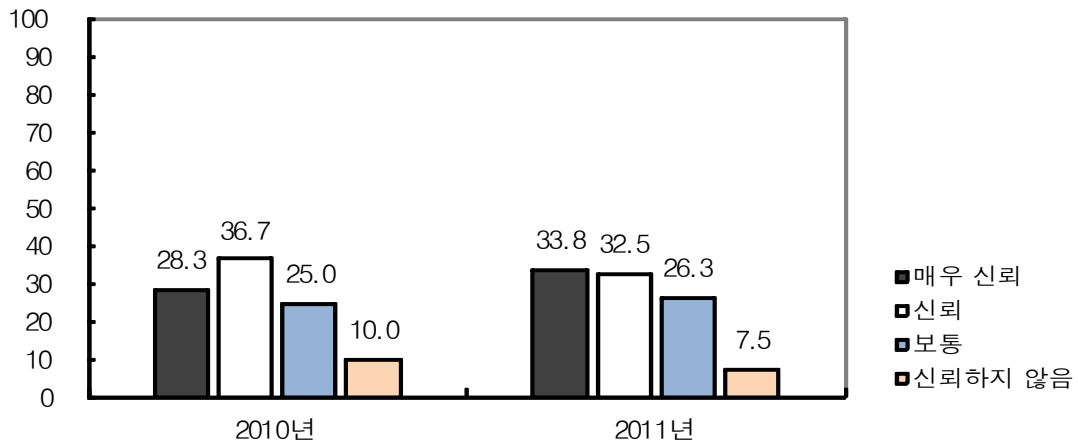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기여 부문

- 관측정보(산채류)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생산면적 조정’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시기결정’이 29.7%, ‘재배관리’ 28.9%, ‘가격결정’이 10.9%로 나타나 주로 생산면적 결정 및 판매시기 부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생산면적 조정’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한 반면, ‘판매시기 결정’, ‘가격결정’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산채류)에 대한 신뢰수준에는 ‘매우 신뢰’가 33.8%, ‘신뢰’ 32.5%, ‘보통’ 26.3%로 나타나 대체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매우 신뢰’는 5.4%p 증가하였으며 ‘신뢰’는 4.2%p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은 다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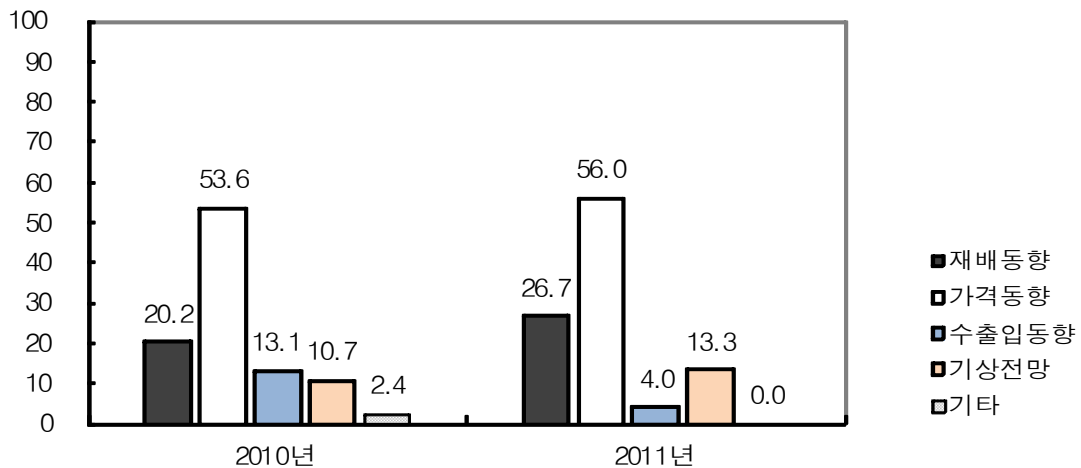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산채류)의 발간횟수에서는 현행 5회(5, 6, 7, 8, 9월)가 ‘적당하다’ 81.0%, ‘적다’ 15.2%, ‘많다’ 3.8%로 나타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적다’는 의견이 1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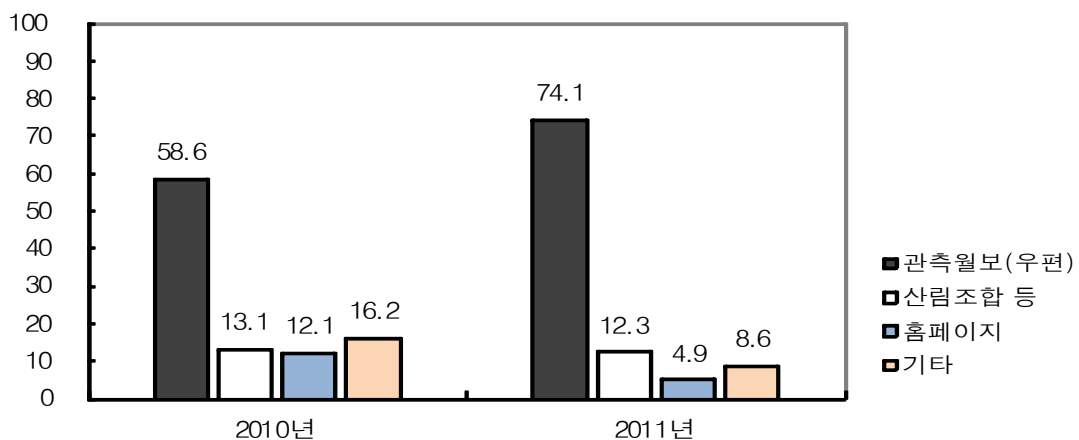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산채류)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가격동향’ 56.0%, ‘재배동향’ 26.7%, 수출입동향 4.0% 등으로 나타나 주로 가격 및 재배동향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수출입동향’ 부문의 활용비율은 9.1%p 감소한 반면, ‘재배동향’, ‘가격동향’ 부문의 활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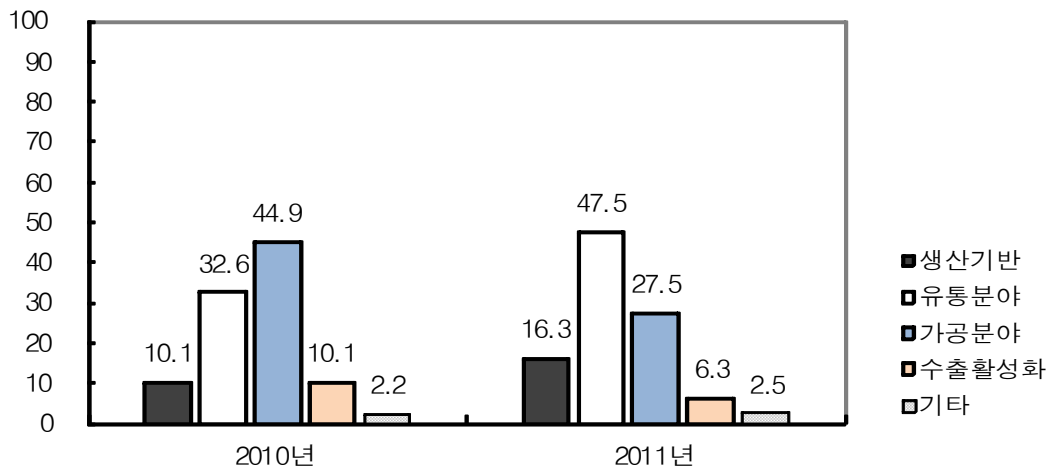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74.1%, ‘산림조합’ 등을 통해서 12.3%, 산림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4.9%, ‘기타(농협 및 작목반)’ 8.6%로 주로 관측월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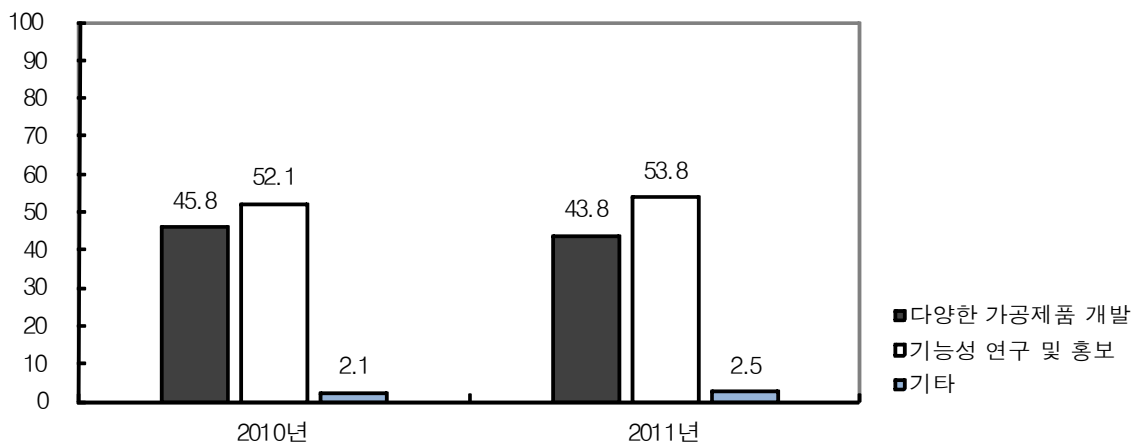
○ 산채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산채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는 ‘유통분야’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공분야’ 27.5%, ‘생산기반’ 16.3%, ‘수출활성화’가 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달리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공분야’에 대한 요구가 감소한 반면, ‘유통분야’ 및 ‘생산기반’ 분야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채류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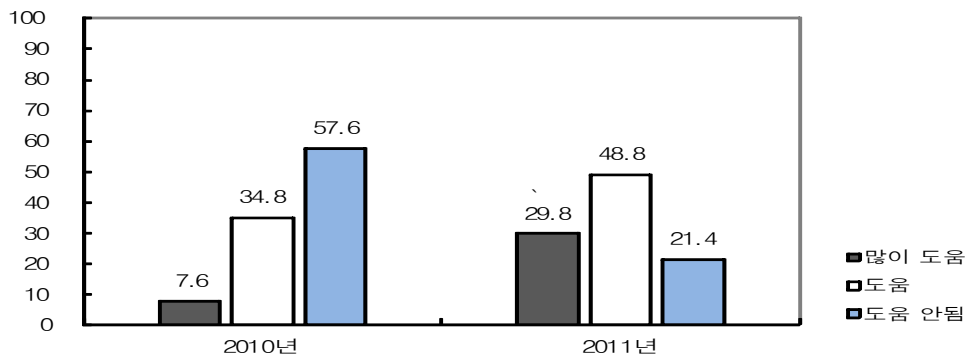
- 산채류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43.8%, ‘기타’(판로 개척, 직거래 등) 2.5%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정책 우선순위는 크게 변화가 없음.



4.8. 조경수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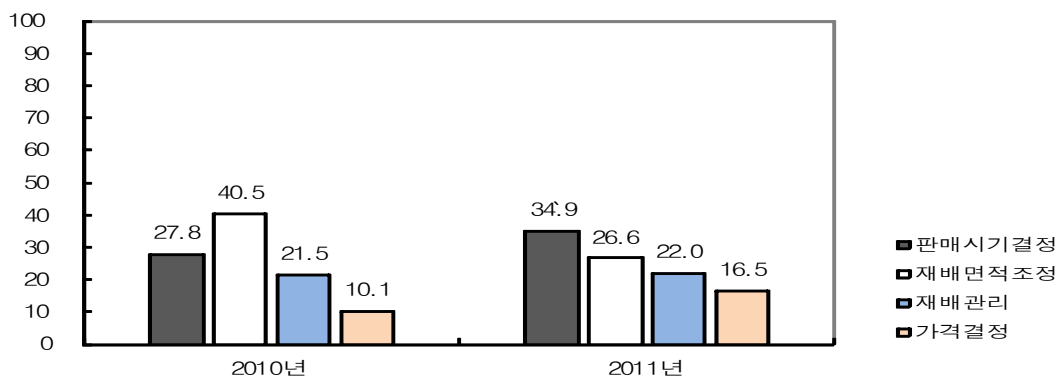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

- 관측정보(조경수)의 경영 의사결정에서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29.8%, ‘도움’이 되었다 48.8%, ‘도움이 안 되었다’ 21.4%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22.2%p 증가하였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14.0%p 증가하여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율은 대폭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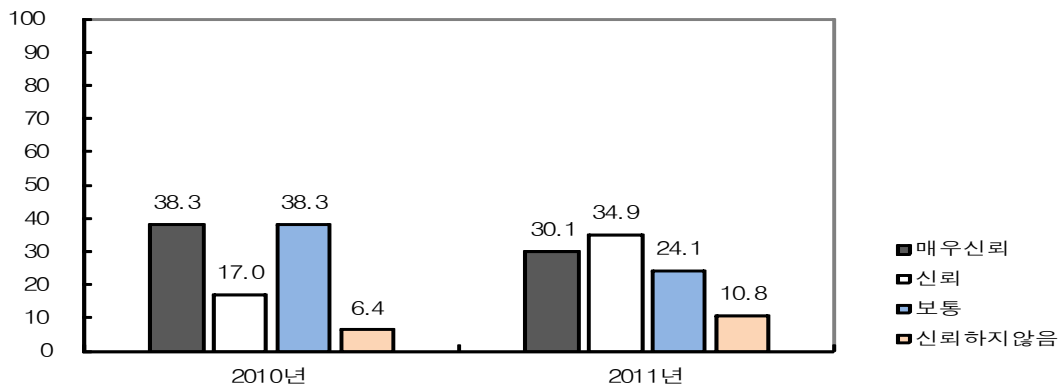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에서 기여 부문

- 관측정보(조경수)가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판매시기 결정’ 34.9%, ‘재배면적 조정’ 26.6%, 재배관리 22.0%, ‘가격결정’ 16.5% 순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재배면적조정 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판매시기결정 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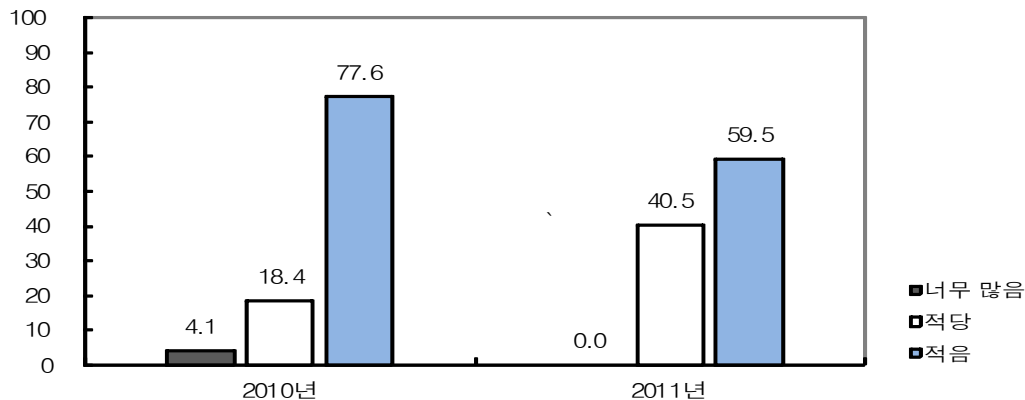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조경수)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매우 신뢰’ 30.1%, ‘신뢰’ 34.9%, ‘보통’ 24.1%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매우 신뢰’ 비율이 8.2%p 감소하였으나, ‘신뢰’ 비율이 17.9%p 증가하여 전반적인 신뢰도는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뢰하지 않음’ 비율이 10.8%로 나타나 앞으로 더욱 조경수 재배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통신원 보강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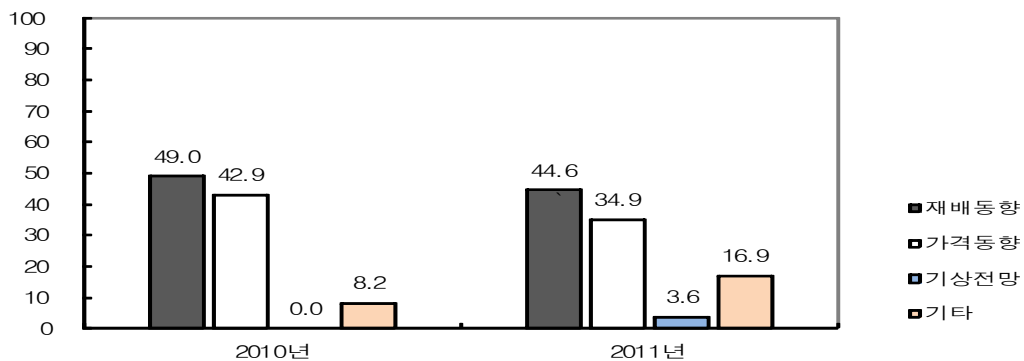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조경수)의 발간횟수에 대해서는 현행 3회(3,6,8월)가 ‘적다’ 59.5%, ‘적당하다’ 40.5%, ‘너무 많다’ 0%로 나타남.
- 2010년 연 2회 발행에서 2011년 연 3회로 발간 횟수를 늘렸지만 이번에도 발간 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59.5%로 나타나 발간 횟수의 증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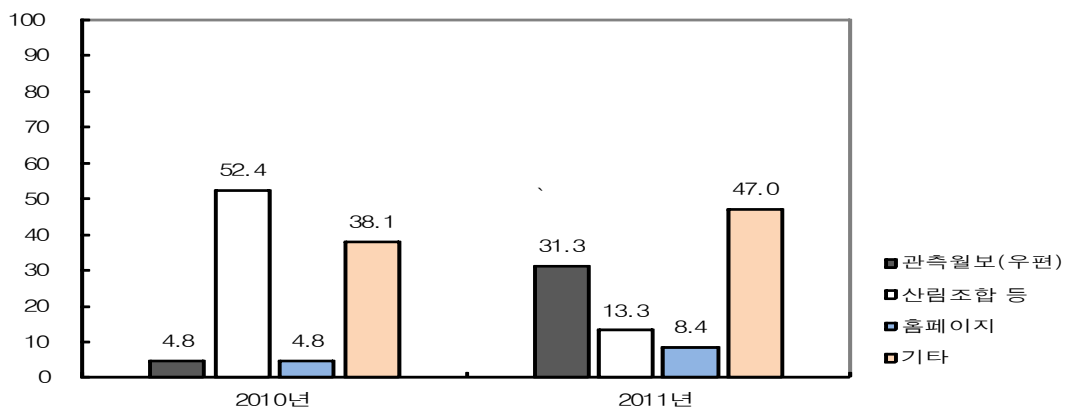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조경수)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은 ‘재배동향’ 44.6%, ‘가격동향’ 34.9%로 재배동향 및 가격동향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가격동향의 활용비율이 8.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경수의 특성상 같은 크기의 수목이지만 수형이나 판매처에 의해 가격이 다양하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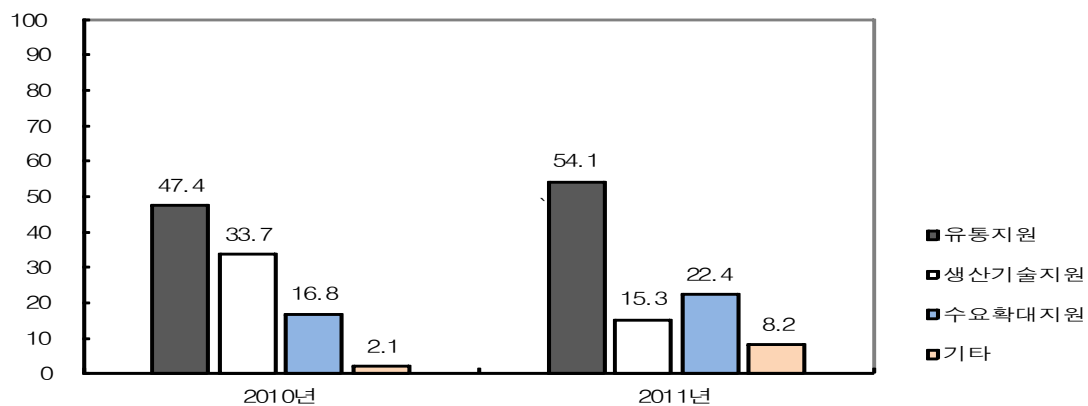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31.3%, ‘산림조합·조경수협회’ 등을 통해서 13.3%, 산림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8.4%, ‘기타’ 지인 등을 통해 접하였다는 의견이 47.0%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관측월보를 통한 정보 접근비율이 26.5%p 증가하여 관측월보에 대한 임가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아직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 접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조경수 재배 임가의 관측월보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경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조경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는 ‘유통지원’ 54.1%, ‘생산기술지원’ 15.3%, ‘수요확대지원’ 22.4%로 유통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유통지원’에 대한 요구가 6.7%p 증가하고, ‘수요확대’ 지원에 대한 요구가 5.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조경수 재배 임가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인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수요처 부족의 개선을 위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4.9. 재배자의 대정부 건의 사항

4.9.1. 밤

- 항공방제 확대 실시
-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 밤 품종 개량
- 다양한 밤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밤 작업로 등 생산기반 지원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수입억제와 원산지 단속 강화
- 밤 수확시기 인력문제 해결 및 기계화

4.9.2. 표고버섯

- 우량종균 개발
- 병충해 방제 기술 개발
-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 수입 원산지 표시 강화
- 안정적인 자목 공급 및 톱밥재배 지원 강화
- 별채 허가기준 완화
- 기술지도 및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4.9.3. 대추

- 직거래, 공판장시스템 구축 등 판로의 다양화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전문재배기술인 육성을 통한 재배기술 교육 강화
- 대추 기능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 대추전문 병해충 방제약제 및 친환경 약제 개발 및 보급
- 저온 창고 및 농기계 지원 사업 강화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비가림 재배시설 등 생산 지원시설 확대
- 대추재배 기술에 대한 전문연구 지원(장마철 낙과방지 등)

4.9.4. 뽕은감

- 뽕은감의 기능성 홍보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 수출활성화 지원
- 생산기반시설 지원 확대(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관수시설 등)
- 수확기 인력부족문제 개선
- 판로확대 지원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감 관련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가격 안정화

4.9.5. 산채류

-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단속 강화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수확기 인력부족문제 개선
-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확대

4.9.6. 조경수

- 건설경기 활성화
- 가격 안정화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센터 설립
- 산지 전용면적 확대
- 과잉생산 방지정책
- 출하 시 적정한 가격보장 등 실질적인 생산자 보호 정책
- 융자금 확대지원
- 관측월보의 수종 다양화

5. 품목별 2011년 동향 및 2012년 1/4분기 전망

5.1. 밤

5.1.1. 2011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2011년 밤 생산량은 작년대비 24%, 평년대비 32% 감소한 5만 2천톤으로 추정
- 2011년 생육기에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수확기의 가뭄 등 기상여건 변화, 수정 시기 잦은 비로 인한 수정불량, 병해충 피해, 남부지역의 폐원과 관리부족 등으로 생산량 감소

<2011년 생산량 추정>

		2011년 추정	2010년	2009년	평년
밤	생산량(톤)	52,000	68,630	75,911	76,202
	증감률(%)	-	-24.2	-31.5	-31.7

주: 평년은 최근 5년(2006~2010년)간 최대 및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값임.

□ 가격 동향

- 2011년 밤 산지 가격은 작년대비 51%, 평년대비 19% 높은 강세가 지속됨. 특히 기상여건 악화로 조생종 수확이 늦어지고, 추석이 평년보다 일러 추석전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추석이후 하락세를 보인 후 중·만생종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11월 kg당 평균 산지가격은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7% 99% 상승한 3,765원, 12월은 4,041원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4%, 107%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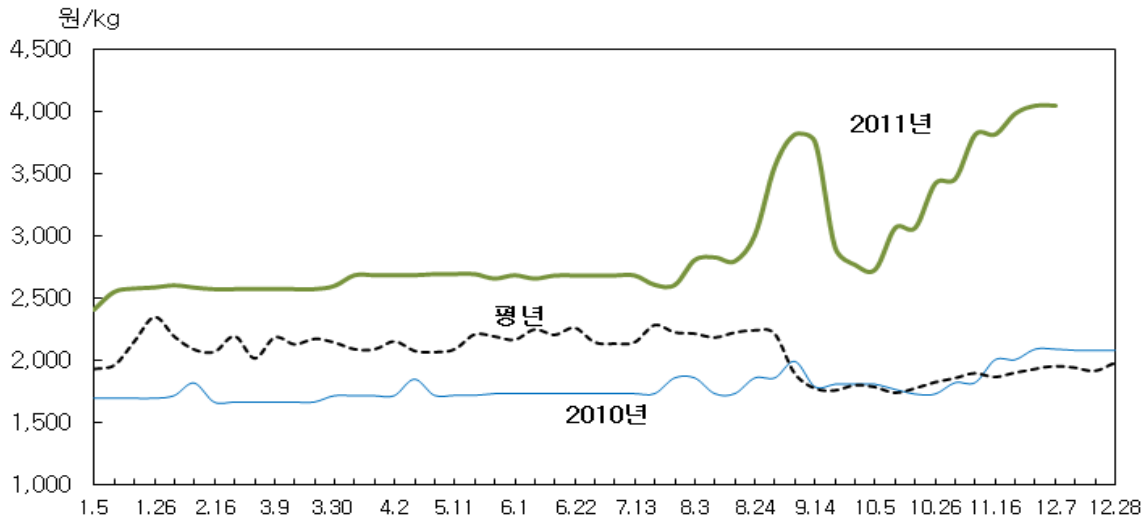
■ 월평균 밤 산지가격 동향(상품기준)

												원/kg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2,535	2,588	2,577	2,671	2,688	2,680	2,656	2,863	3,360	3,071	3,765	(4,041)
2010	1,700	1,720	1,680	1,753	1,726	1,736	1,767	1,798	1,852	1,762	1,913	2,081
평년	2,188	2,101	2,160	2,092	2,153	2,220	2,194	2,210	1,845	1,772	1,825	1,949

주: 12월 가격은 12월 17일까지, 평년가격은 '06년 1월~'10년 12월까지의 주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을 의미하며, 산지가격은 공주, 광양, 부여, 하동, 순창, 순천지역 등의 평균 가격임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산지 가격동향(상품)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5.1.2. 수출입 동향

- 1~11월까지의 밤 총 수출액은 2,786만 2천 달러, 총 수출량은 10,497톤으로 평년대비 21.3%, 전년대비 17.2% 감소함.
- 일본, 중국이외에 미국, 유럽, 중동 등 수출대상국이 다변화 되었으나, 국내가격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12월 수출량도 많지 않을 전망.

■ 밤 수출 실적

단위 : 톤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1	생 밤	16	18	1	14	2	1	3	32	2,740	5,887	584	-	9,297
	간 밤	0	0	1	0	-	-	0	0	201	505	61	-	769
	조제밤	81	46	22	10	31	1	26	33	12	58	91	-	411
'10	생 밤	97	56	6	3	21	18	36	20	2,374	6,977	1,731	439	11,779
	간 밤	0	0	-	-	0	-	-	0	197	451	158	-	806
	조제밤	38	23	8	90	27	63	41	56	54	93	33	74	600
평년	생 밤	60	26	3	13	11	8	10	29	5,475	4,961	978	199	11,722
	간 밤	2	0	0	-	1	1	1	3	369	515	161	23	1,077
	조제밤	30	41	53	61	39	63	31	60	71	56	60	73	636

주: 12월은 12월 20일까지 수출된 물량이며 합계에는 미포함. 평년은 2006년 1월~2010년 12월까지의 월별 값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1~11월까지의 밤 총 수입액은 1,408만 6천 달러, 총 수입량은 5,658톤으로 평년 대비 7.3% 감소하였으나 작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밤 수입은 다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밤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국내 가격상승으로 생밤 수입량이 평년보다 증가한 반면, 냉동밤과 조제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밤 수입 실적

단위 : 톤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1	생 밤	134	106	159	168	164	156	43	103	166	262	272	-	1,733
	냉동밤	359	179	187	330	262	239	185	115	297	86	236	-	2,475
	조제밤	170	229	164	76	143	160	80	109	123	86	109	-	1,450
'10	생 밤	147	116	88	179	81	56	79	23	72	151	143	177	1,311
	냉동밤	386	208	231	260	182	226	333	268	283	211	530	278	3,394
	조제밤	32	115	200	120	90	129	166	107	114	142	136	141	1,492
평년	생 밤	204	182	137	154	115	68	71	43	86	184	154	163	1,561
	냉동밤	393	147	242	215	207	196	215	146	209	281	398	285	2,935
	조제밤	185	166	213	189	224	185	233	190	109	169	186	168	2,218

주: 12월은 12월 20일까지 수입된 물량이며 합계에는 미포함. 평년은 2006년 1월~2010년 12월까지의 월별 값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5.1.3. 2012년 1/4분기 전망

□ 가격전망

- 2011년산 밤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저장물량도 평년보다 많지 않아, 공급량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밤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신정 및 설, 대보름 등 전통명절 소비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요인이 잠재해 있어 1~2월 산지가격은 kg당 4,000원 이상의 강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5.2. 표고버섯

5.2.1. 2011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 동향

- 2011년 생표고 생산량은 작년보다 증가한 2만 1천 톤으로 추정.
- 원목재배는 줄고 있지만, 톱밥배지 재배가 확대되어 전체 생표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
- 건표고 생산량은 봄철 이상저온으로 노지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상반기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생산량이 회복되었어도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2천 6백 톤으로 추정.

<2011년 생산량 추정>

		2011년 추정	2010년	평년
생표고	생산량(천톤)	21,478	20,806	23,877
	증감률(%)	-	3.2	-10.0
건표고	생산량(천톤)	2,557	2,741	2,273
	증감률(%)	-	-6.7	12.5

□ 가격 동향

- 2011년 11월까지 생표고 도매시장 가격(중품)은 작년보다 6% 높은 kg당 23,374원이며 생표고 수요 증가로 5월~8월을 제외한 대부분 작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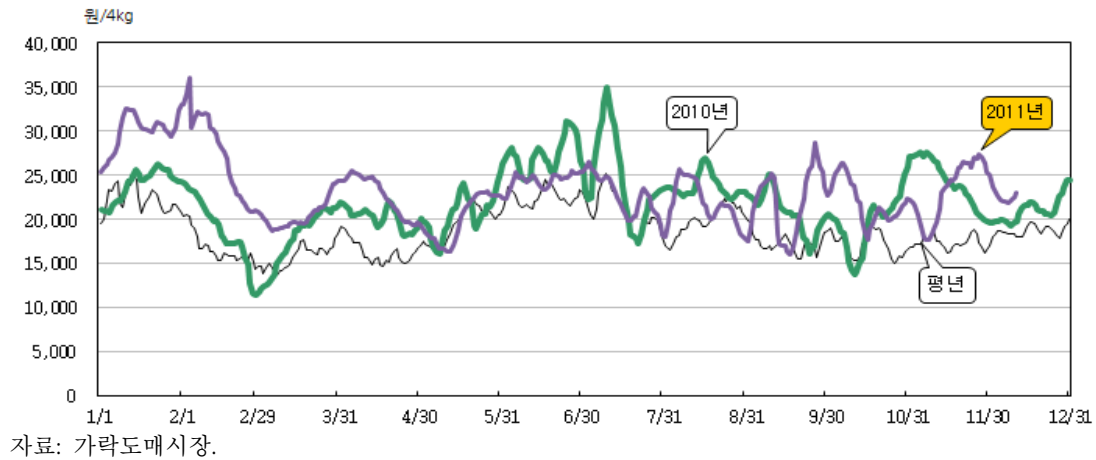
■ 생표고 가락도매시장 가격동향(중품)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29,796	27,551	20,595	22,744	19,853	24,333	23,022	21,745	22,318	21,955	23,197	-
2010	24,212	19,748	17,202	20,320	20,278	27,368	24,529	23,803	21,186	19,321	24,680	20,894
평년	23,627	17,158	15,290	16,057	19,225	22,118	21,649	19,612	16,961	17,369	17,375	18,856

주: 평년가격은 '06년 1월~'10년 12월의 월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가락도매시장.

■ 생표고 가락도매시장 가격동향(중품)



- 2011년 12월까지의 건표고 입찰가격은 전년보다 10.1% 상승하였는데 화고 이상 등급의 가격은 하락하고 동고 이하 등급의 가격은 상승하였음. 특히 향신, 등외, 슬라이스 가격은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하였음.
- 슬라이스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출하량 또한 전년보다 95% 증가하였고, 좋은 품질의 버섯이 적어 백·흑화고의 출하량은 전년보다 적고 가격 또한 낮았음.

■ 건표고 장흥유치농협 가격동향

단위 : 천원/3.75kg

구분	건표고	1~2월	3월	4월	5월	6월	7~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1년	백화고	-	391	390	388		-	-	-	388	389
	흑화고	-	262	236	246	228	-	214	226	257	245
	동고	-	140	153	159	150	-	133	141	133	153
	향고	-	95	96	109	105	-	103	115	115	106
	향신	-	62	72	86	74	-	76	75	82	80
	등외	-	53	51	65	51	-	44	52	60	60
	슬라이스	-	126	117	129	123	-	101	88	80	104
2010년	백화고	-	-	415	410	-	-	-	421	410	411
	흑화고	-	288	288	285	260	-	-	274	274	282
	동고	-	120	120	118	108	-	-	138	149	130
	향고	-	90	90	89	80	-	-	94	109	95
	향신	-	65	65	64	64	-	-	65	67	65
	등외	-	48	48	47	45	-	-	48	49	47
	슬라이스	-	82	82	82	80	-	-	84	86	82

자료: 장흥유치농협

5.2.2. 수출입 동향

□ 수입 동향

- 11월까지 생표고 누적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9% 증가한 4,030톤이지만, 건표고 누적수입량은 26.8% 감소한 1,747톤이고 조제표고 누적수입량은 7.3% 감소한 5,426톤임.
- 2010년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북한산 건표고의 반입이 중단되어 2011년에는 반입량이 없었음.

■ 월별 표고버섯 수입실적

단위: 톤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2011	생표고	588	393	441	342	318	302	320	403	314	305	306	-	4,030
	건표고	316	165	122	139	181	170	96	163	105	127	161	-	1,747
	조제표고	590	725	437	595	420	404	458	390	478	437	492	-	5,426
2010	생표고	364	408	112	74	59	116	99	217	293	166	377	341	2,619
	건표고 (북한산)	241 (50)	252 (30)	161 (48)	260 (87)	150 (21)	179 (15)	254 (39)	157 (0)	154 (0)	107 (0)	206 (0)	266 (0)	2,387 (290)
	조제표고	797	428	508	795	773	379	360	191	199	411	482	512	5,85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 수출 동향

- 11월까지 생표고 수출은 산림청 수출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25.5톤이 수출되었음.
- 11월까지 건표고 누적수출량은 151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231톤)보다 35% 감소하였음.

■ 월별 표고버섯 수출실적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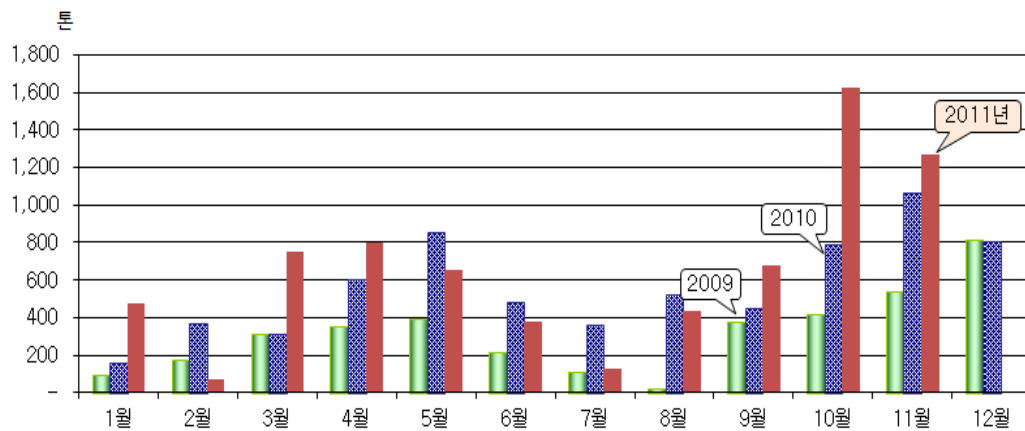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2011	생표고	4.0	0.0	0.0	0.1	0.0	1.3	0.0	0.0	3.5	10.1	6.5	-	25.5
	건표고	22.4	13.7	32.5	7.8	10.4	6.8	9.9	5.8	6.7	25.8	9.1	-	151.0
2010	생표고	0.0	0.0	0.1	0.4	0.1	0.0	0.0	0.4	0.0	0.1	0.0	5.0	6.4
	건표고	56.6	31.6	6.6	11.2	8.9	22.8	17.1	4.4	20.4	22.7	28.5	75.0	305.7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 버섯종균(툽밥배지) 수입 동향

- 11월까지 중국산 버섯종균(툽밥배지) 누적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5,910톤)보다 22.8% 증가한 7,259톤이었으며, 3~5월, 9~12월에 수입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툽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2012년에도 배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버섯종균(툽밥배지) 월별 수입량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주: 버섯종균(툽밥배지) HS code - 0602.90.9040

5.2.3. 2011년 1/4분기 전망

□ 생산 및 가격전망

- 2012년초 생표고 가격은 설 이전까지 오르다가 이후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겠지만 수입량의 증가추세, 수입배지를 이용한 생표고 출하 등으로 가격 등락폭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

5.3. 대추

5.3.1. 2011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2011년 대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20% 감소한 7,551톤으로 전망되며, 품질은 당도·광택이 향상되어 작년보다 높아졌음.
- 대추 생산량은 개화기 및 착과기에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감소하였으나, 결실량이 적고 대추의 크기도 작아 당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품질은 높아졌음.

<2011년 생산량 추정>

	2011년 (추정)	2010년
생산량	7,551톤	9,427톤
증감률(%)	-	-19.9

□ 가격 동향

- 2011년 상반기 대추 가격은 작년 대추 수확량이 적어 작년 동기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개화기 이후 장마로 인한 기상피해와 재고량 부족으로 7월 이후 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상품(특초)기준 kg당 8,500원 까지 상승하였음.

■ 월별 건대추 평균 도매 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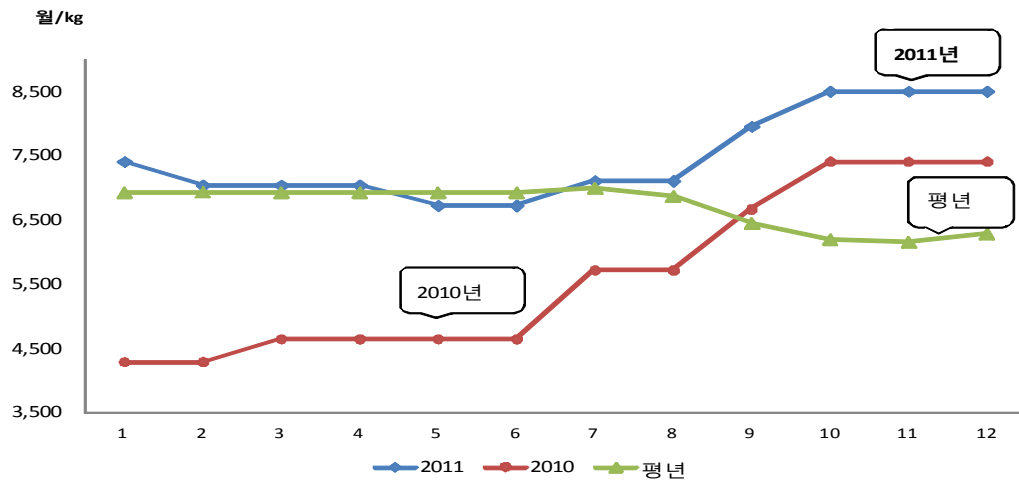
단위 :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7,407	7,037	7,037	7,037	6,719	6,719	7,104	7,104	7,954	8,500	8,500	8,500
2010	4,286	4,286	4,643	4,643	4,643	4,643	5,714	5,714	6,667	7,407	7,407	7,407
평년	7,971	7,976	7,976	7,976	7,976	7,976	7,976	7,775	6,905	6,154	6,081	6,292

주: 평년가격은 '06년 1월~'10년 12월의 월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12월 가격은 1월~15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경동시장

■ 월별 건대추 평균 도매가격동향 (상품)



자료: 경동시장

5.3.2. 수입 동향

- 1~12월까지의 대추 총 수입량은 약 10톤으로 2월 이후 수입은 거의 없었음.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산 건대추 가격이 국산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올해 9월 이후 국내 건대추의 가격이 상승하여 향후 중국산 건대추의 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월별 건대추 수입실적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1년	10	-	-	-	-	-	-	-	-	-	-	-	10
2010년	-	-	10	-	-	-	-	-	-	-	-	-	10
2009년	-	-	-	-	-	-	-	-	-	-	-	-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5.3.3. 2011년 1/4분기 전망

□ 재고(생산) 및 가격전망

- 내년 1/4분기 건대추 가격은 2011년 대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2011년 하반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특초)기준 kg당 8,500원 내외의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5.4. 뽕은감

5.4.1. 2011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2011년 뽕은감 생산량은 작년보다 17.6% 적은 84,000톤 내외로 추정됨.
- 경남지역은 여름철 장마로 낙과량이 많았으며, 전남 영암지역은 태풍 「무이파」 피해로 낙과 및 잎의 손상이 컸음. 경북 청도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하였으나, 상주는 일조량 부족 및 여름철 장마로 낙과량이 많았음. 반면, 작년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충북지역은 회복세를 보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 생산량 증감률

단위 : 톤, %

구 분	전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기타
2010년 생산량(톤)	101,950	13,649	56,050	22,665	2,632	5,803	1,151
2011년 생산량 증감률(%)	-17.6	-35.3	-9.9	-37.0	-9.3	15.0	-

주: 전국 값은 2010년 뽕은감 전국 생산량 가중치 적용 지수임
 자료: 뽕은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2011.10.26~10.31)

□ 가격 동향

- 2011년 하반기 꾀감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은 kg당 18,800원으로 원료감 공급과 수입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3% 정도 높게 형성되어 지속되었음.

■ 꾀감 월별 가격동향

단위 : 원/kg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 가격 (중품)	2011	23,316	23,286	23,492	23,750	23,758	23,750	23,750	23,750	23,750	23,750	23,750	
	2010	20,940	21,962	22,508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도매 가격 (상품)	2011	18,583	18,604	18,745	18,920	18,928	18,920	18,920	18,920	18,920	18,920	18,920	
	2010	16,590	17,593	18,307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자료 : 경동시장

5.4.2. 수출입 동향

□ 수입 동향

- 1~10월까지의 꽃감 총 수입량은 1,186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38.3% 감소하였음.
-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산 꽃감의 수입단가는 작년보다 상승하였음.

■ 꽃감 월별 수입실적

단위 : 천USD, 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1	금액	2,139	13	81	41	-	-	46	63	75	288			
	중량	894	6	45	23	-	-	20	34	44	120			
2010	금액	449	186	18	113	286	-	1,219	1,043	736	400	26	2,924	7,400
	중량	178	78	11	60	157	-	679	569	274	155	18	1,198	3,377
2009	금액	1,266	52	218	21	588	-	93	145	350	309	37	897	3,976
	중량	667	28	120	10	391	-	71	84	211	177	24	383	2,166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5.4.3. 2011년 1/4분기 전망

□ 가격전망

- 2012년 햇꽃감 도매가격은 최상품의 경우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겠지만, 중품과 하품 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1년 뽕은감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꽃감 원료감으로 단감 유입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임.
- 품질별 가격 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됨. 11월 중순경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감 건조 과정에서 쪼리가 많이 빠져, 최상품 비율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중·하품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수입전망

- 꽃감 수입은 명절 전에 집중되는데,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꽃감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2010년 12월에는 1,198톤, 2011년 1월에는 894톤이 수입되었음.

5.5. 산채류(고사리)

5.4.1. 2011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2011년 고사리 생산량은 작년보다 14% 적은 5,300톤 추정
- 2011년 4~6월 고사리 주산지의 이상저온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생산량이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며, 저장물량도 작년보다 적고 품질도 좋지 않을 전망.

<2011년 생산량 추정>

	2011년 추정	2010년	2009년	평년
생산량(톤)	5,300	6,151	4,655	4,331
증감률(%)	-	-13.7	13.9	22.4

□ 가격 동향

- 2011년 마른고사리 소비지 가격은 2010년산 재고량 감소와 2011년 생산량 감소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음. 1~4월에는 2010년산 재고량 감소에 따라 kg당 93,500~95,500원의 강세를 나타냈고, 수확기인 5~7월에는 생육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96,000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추석이전에는 96,500원 수준의 강세를 나타냈다가 11~12월은 95,500원 수준으로 다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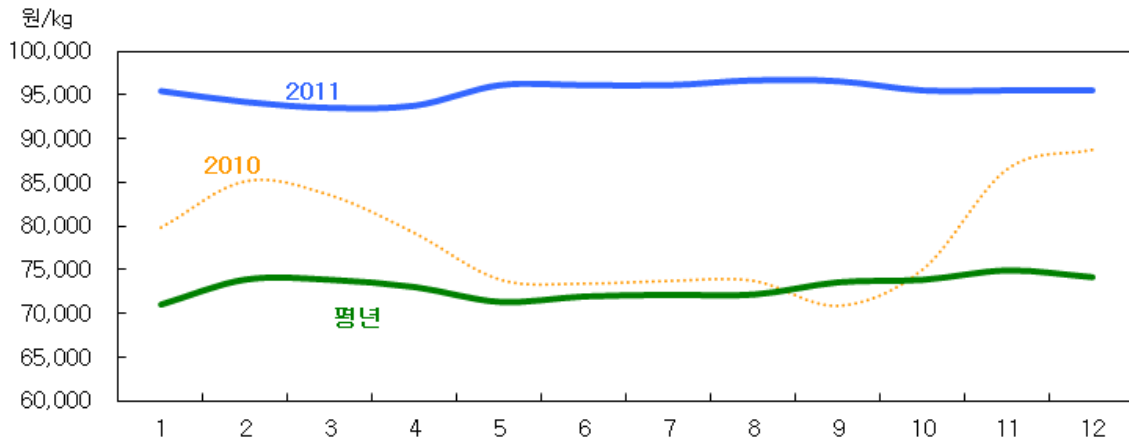
■ 월별 마른고사리 소비지 가격동향(상품)

단위: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95,429	94,180	93,500	93,760	96,100	96,100	96,100	96,650	96,556	95,500	95,500	95,500
2010	79,750	85,077	83,452	79,089	73,785	73,333	73,634	73,650	70,778	74,992	86,505	88,674
평년	70,980	73,830	73,807	72,971	71,295	71,910	72,087	72,124	73,521	73,805	74,865	74,098

주: 12월 가격은 12월 17일까지, 평년가격은 '06년 1월~'10년 12월까지의 월별 평균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을 의미하며, 소비지가격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평균 가격임.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 마른고사리 소비지 가격동향(상품)



자료: 임산물유통사업소.

5.4.2. 수입 동향

- 1~11월까지의 마른고사리 총 수입량은 3,366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15.2% 감소하였음. 이는 수입의 대부분인 중국산 고사리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북한산 수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향후 국내산 소비지 가격은 작년과 평년대비 강세를 보일 전망이나, 중국내 가격도 높아 큰 폭의 수입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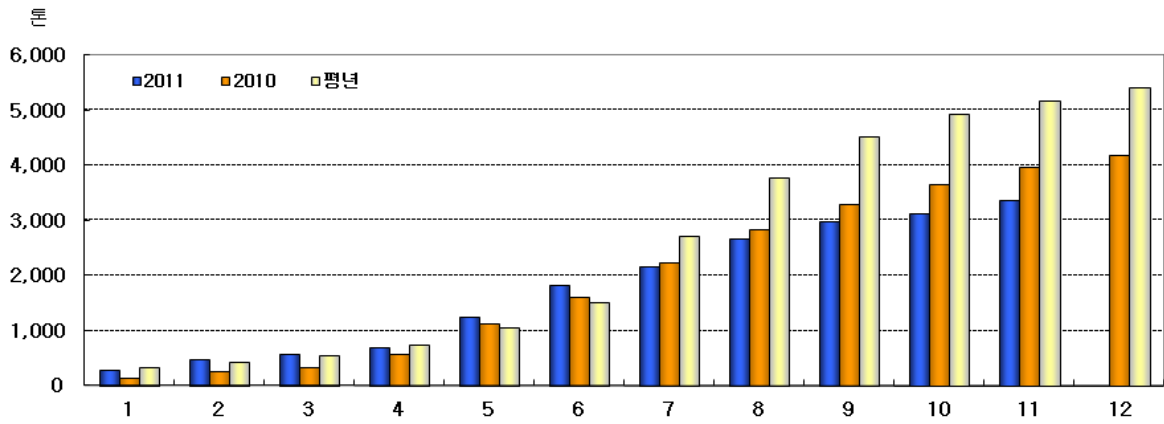
■ 월별 마른고사리 수입실적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1	전 체	291	182	109	121	554	565	355	497	304	159	228	-	3,366
	북한산	-	-	-	-	-	-	-	-	-	-	-	-	-
2010	전 체	120	116	84	218	557	462	647	587	462	350	278	206	4,088
	북한산	16	3	-	19	8	-	-	6	3	6	27	4	93
평년	전 체	274	105	88	172	324	357	825	747	599	290	215	173	4,170
	북한산	53	13	10	21	10	95	381	298	166	101	49	46	1,24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통일부

■ 월별 마른고사리 수입실적(누적)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www.customs.go.kr), 통일부.

5.4.3. 2012년 1/4분기 전망

□ 재고(생산) 및 가격전망

- 2011년 고사리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1/4분기 출하될 마른고사리 가격은 평년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5.6. 조경수

5.6.1. 2011년 생산 및 가격 동향

□ 생산동향

- 반송 생산량은 작년보다 4.5% 많은 3,246천 본 추정
- 느티나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9.8% 많은 3,812천 본 추정
- 철쭉 생산량은 작년보다 11.3% 적은 29,729천 본 추정
- 가시나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7.3% 많은 3,041천 본 추정
- 철쭉을 제외한 수종의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5~10% 증가함.
- 철쭉은 올해 식재한 묘목의 기상피해가 커서 내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
- 가시나무의 묘목생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어 4~5년 후에 가시나무의 생산량이 감소할 예상임.

<2011년 생산량 추정>

구분		2011년 추정	2010년 생산량
반송 (소나무로 대체)	생산량(천본)	3,246	3,107
	증감률(%)	-	4.5
느티나무	생산량(천본)	3,812	3,472
	증감률(%)	-	9.8
철쭉	생산량(천본)	29,729	33,517
	증감률(%)	-	-11.3
가시나무류	생산량(천본)	3,041	2,835
	증감률(%)	-	7.3

자료: 산림청 임산물 통계연보

□ 가격동향

- 2010년 조경수 목대 가격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조경수 수요 부족으로 느티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수종은 2010년 보다 13~47%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었음. 대형목 선호현상으로 인해 동일한 수종의 경우 규격이 큰 수목의 가격하락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느티나무의 경우 R15이상의 규격은 2010년에 비해 3%이상 상승함.

■ 목대가격

단위: 원

수종	규격	2011년	2010년	증감률(%)
반송	W1×H1	76,650	-	-
	W1.5×H1.5	187,000	215,083	-13.1
느티 나무	H3.5×R12	133,900	165,000	-18.8
	H4.0×R15	273,950	264,666	3.5
	H4.0×R20	400,650	369,230	8.5
철쭉	산철쭉 W0.3×H0.3	504	589	-14.4
	백철쭉 W0.3×H0.3	460	600	-23.3
	영산홍 W0.3×H0.3	550	620	-11.3
	자산홍 W0.3×H0.3	470	559	-15.9
가시 나무	H3.5×R8	69,000	128,182	-46.2
	H4.5×R12	176,500	214,286	-17.6

자료: 표본임가 및 통신원 조사

5.6.2. 2012년 1/4분기 전망

□ 생산 및 가격전망

- 올해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전반적인 조경수 가격하락으로 인해 내년 신규식재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철쭉의 경우 올해 동해와 호우에 의한 1년생 묘목의 기상피해가 커서 내년도 생산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다른 수종의 경우 신규식재는 감소하지만 기존 식재규모가 많고 1/4분기까지는 건설경기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아 전반적인 조경수 가격은 약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제 3 장

2012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계획(안)

1. 대상 품목 및 내용

☐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6개)
- 금액: 6억원

☐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월별 출하와 저장, 가격 동향과 전망
- 품목별 생산지와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과 수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2. 세부 추진계획

2.1. 추진 목표

- 임업관측 사업의 내실화
- 임업관측 정보의 폭넓은 분산체계 구축

2.2. 추진 일정

□ 밤

- 준비: 2012년 1~2월
- 월보발간: 2012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를 발간
 - 발행부수: 3,876부

□ 표고버섯

- 준비: 2012년 1~2월
- 월보발간: 2012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3,600부

□ 대추

- 준비: 2012년 1~3월
- 월보발간: 2012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600부

□ 뽕은감

- 준비: 2012년 1~3월
- 월보발간: 2012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550부

□ 산채류

- 준비: 2012년 1~3월
- 월보발간: 2012년 4월부터
- 관측품목: 고사리, 더덕, 곰취, 도라지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4, 5, 6, 8, 9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각각 2,33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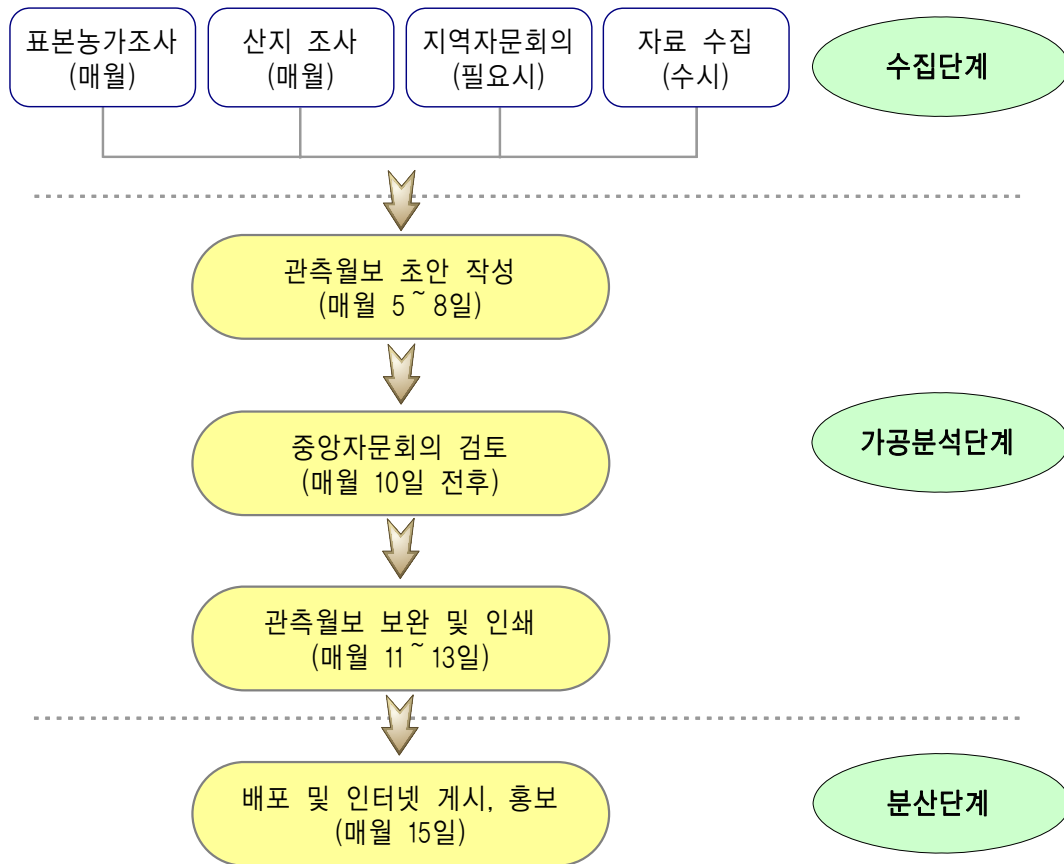
□ 조경수

- 준비: 2011년 12월~2012년 2월
- 월보발간: 2012년 3월부터
- 관측품목: 소나무, 느티나무, 철쭉, 가시나무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주요 판매시기 전 3, 4, 8, 9월 15일에 발행(1회 추가발간)
 - 발행부수 : 각각 2,300부

□ 종합호

- 월보발간: 2012년 12월
- 관측품목: 밤, 표고, 대추, 뽕은감, 산채류, 조경수
- 발행부수: 7,500부

2.3.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4. 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정비

□ 밤

- 준비작업: 2012년 1~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4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로 추가 보완, 지역자문위원 20~25명을 유지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12년 1~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5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30명 내외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대추

- 준비작업: 2012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0명 내외 유지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150호(예비농가 50호 포함)로 추가 보완, 지역자문위원은 22명 정도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뽕은감

- 준비작업: 2012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3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120호(예비농가 30호 포함) 내외 유지, 지역자문위원은 30명 정도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산채류

- 준비작업: 2012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6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내외 유지, 지역자문위원 20명으로 확대 개편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조경수

- 준비작업: 2012년 1월~2012년 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5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조경수 유통센터 전문가 적극 활용)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240호(예비농가 50호 포함)에서 300호로 확대 추진, 자문위원 20명 내외를 유지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3. 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 관측품목 표본에 대한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등 기존 관측품목의 표본임가 중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이 낮은 임가에 대한 교체를 실시하고, 주산지 변화에 따른 지역별 표본조정이 필요
 - 산림조합, 농림기술센터, 지자체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기술인, 특화 전문지도원 등의 추천·협조를 통해 주산지별 표본임가를 재구성

- 표본 임가에 관한 정보는 시·군 지자체 및 지역 농림기술센터 등의 협조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출되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측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음.

□ 품목별 생산·유통 및 시장 구조 반영 강화

- 품목별로 생산·유통 및 시장 구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관측 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제공되는 정보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표고: 톱밥표고 시장 정보 강화, 톱밥배지 재배 생산정보 강화
 - 대추: 생대추 직거래 가격정보 제공
 - 뽕은감: 연시·홍시용과 꽃감용 감을 구분하여 정보제공, 생감 공판 경매가격 자료 제공 강화.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정보 제공 강화

□ 소비자 조사 실시

- 2011년 실시된 품목이외에 2개 품목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실시
 - 구매처, 소비방법 등
- 명절 제수용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향조사 실시
 -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 이전에 임산물에 대한 소비의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품목별 토론회 개최

- 품목별 연간 생산동향과 전망,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생산자, 유통업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품목별 토론회 개최(연 1회, 1품목)
 - 2011. 11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함.
 - 연 1회 1품목으로 개최하되 품목별로 순환하여 실시.

□ 조경수 유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추진

- 조경수(굴취) 품목의 유통이력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 조경수(소나무) 유통이력제 추진 방안
 - 조경수(소나무) 유통비용 및 원가계산
 - 조경수 유통체계 개선 방안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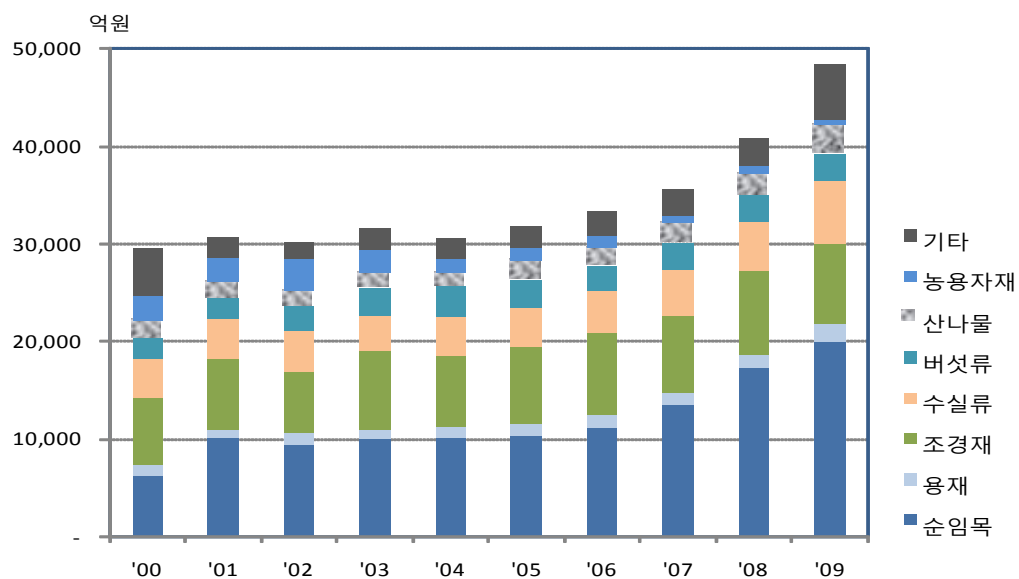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1. 임산물 생산 동향

1.1. 주요 임산물 생산 동향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나라 임업생산은 1조 2,056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0.1%에 해당한다.
- 산림청이 발표하는 2009년도 임산물 총생산액은 4조 8,314억원으로 2008년의 4조

그림 4-1. 최근 10년간(2000~2009) 임업생산액 추이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연도별 원자료 분석

808억원에 비해 18.4% 증가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순임목 생산액이 1조 9,980억원으로 임산물 총생산액의 41.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생화 포함) 8,208억원, 수실류 6,440억원, 산나물류 3,024억원, 버섯류 2,760억원, 용재 1,846억원, 농용자재 450억원 순이다. 농용자재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산나물, 수실류, 용재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1.2. 품목별 생산동향

- 조경재는 임산물 총생산액의 17.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에 비해 3.5% 감소하였다. 이는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 품목별로 보면 조경수 생산량 2,977만 4천본 증가(56.4%), 생산액 211억원 감소(Δ 2.7%), 야생화는 생산량 358만8천본 감소(Δ 12.5%), 생산액 11억원 감소(Δ 4.3%), 분재는 생산량 1만6천본 감소(Δ 1.0%), 생산액 75억원 감소(Δ 20.8%)이다.
- 수실류 생산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09년 생산량은 205,690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5.3% 증가하였고, 생산액은 6,440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하였다.
 - 밤은 2009년 태풍이 없어 2008년에 비해 생산량은 1.0% 증가한 75,911톤, 생산액은 1.5% 증가한 1,415억원이다.
 - 잣은 주산지인 홍천, 가평, 인제군 등의 작황이 좋아 2008년에 비해 생산량이 6.1% 증가하였다.
 - 대추는 생육조건 호조로 작황이 좋아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 뽕은 감은 청도군과 영동군의 특화상품개발 지원 등으로 식재면적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 임산버섯류에는 송이,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 송이는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되며 표고버섯은 시설재배가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09년도 산나물 생산액은 전년보다 41.7% 증가하였는데 웰빙 붐으로 산나물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공급단가도 상승하고 있다. 한편, 농용자재는 녹비 등을 말하는데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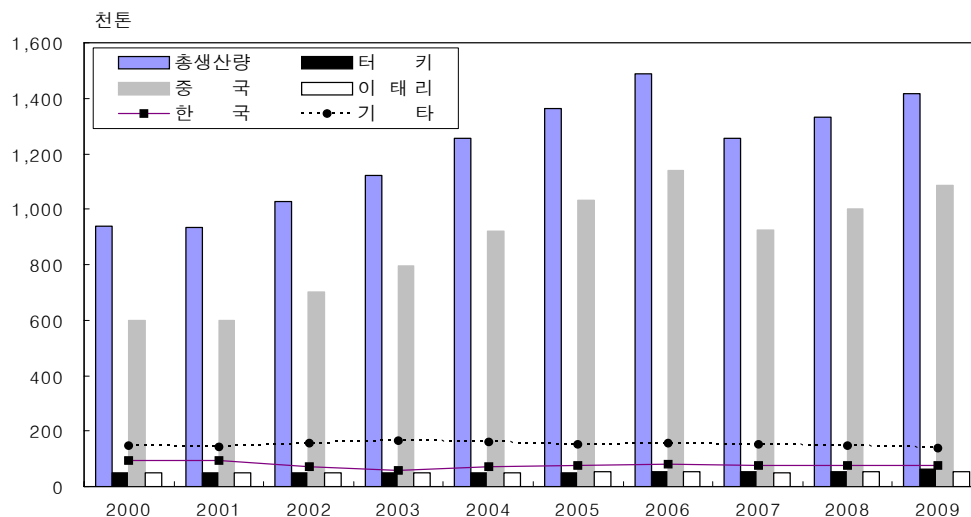
2. 밤

2.1. 국제 동향

2.1.1. 세계 밤 생산동향

- 최근 10년간(2000~2009) 세계 밤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48만 7천 톤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세계 밤 생산량은 141만 8천 톤으로 연평균 5.1%씩 증가하여 왔다.
- 주요 밤 생산 국가는 중국, 한국, 터키, 이태리 등이며 이들 4개국이 세계 밤 생산량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 주요 국가별 세계 밤 생산 추이,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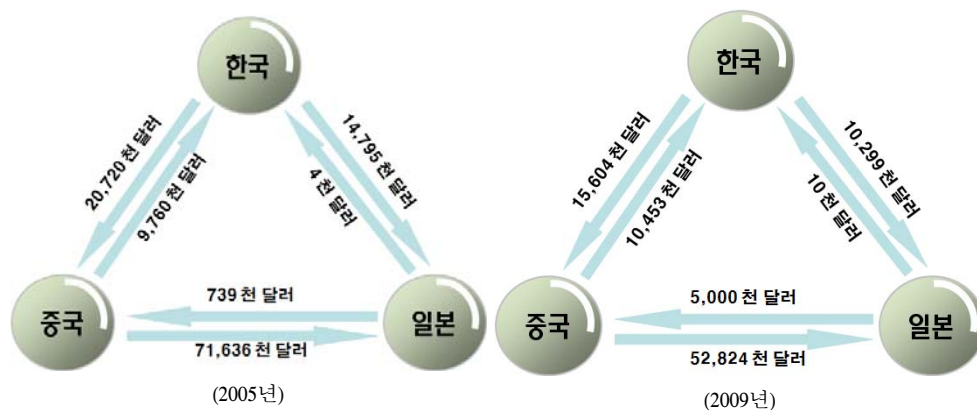
자료: www.fao.org

- 터키와 이태리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5만 톤 내외를 생산하였으나 2009년에는 각각 6만1천 톤, 5만5천 톤을 생산하면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중국은 세계 밤 생산량의 7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밤 생산국이다. 중국의 밤 생산은 2000년 59만 8천 톤에서 2006년 113만 9천 톤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08만 5천 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FAO, 2010). 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8.1%씩 증가한 것이다.

2.1.2. 한·중·일 밥 교역 동향

- 한-중-일에서 밥 교역은 주요 소비시장인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형태이다. 일본에서 밥 소비가 감소하고 우리나라 농촌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수출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국은 중국으로 원료용 생밥을 수출하고, 중국은 일본으로 깐밥 등 가공 밥을 수출하며, 중국은 한국으로 단밥과 가공용 밥(냉동 밥)을 수출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왔다.
- 최근 5년간 교역 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對)중국 밥 수출은 2005년 2,072만 달러에서 2009년 1,560만 4천 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밥 수입은 2005년 976만 달러에서 2009년 1,045만 3천 달러로 증가하였다.
 -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은 일본의 밥 소비가 감소하면서 일본 수출 원료용 밥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중국으로부터 밥 수입이 증가한 것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밥과 별도 가공 없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조제저장처리밥(단밥)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중국-일본의 교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對)일본 수출은 2005년 7,163만 6천 달러였지만 2009년 5,282만 4천 달러로 감소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79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중국산 밥의 대일 수출 감소는 일본의 소비감소와 함께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기인한다.

그림 4-3. 한·중·일 밥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일본의 교역동향도 일본의 소비 감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의 대(對) 일본 밤 수출액은 2005년 1,479만 5천 달러에서 2009년 1,029만 9천 달러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4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밤의 일본 수출이 감소한 것은 깡밤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증가, 위안화 강세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일본의 소비감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국산 밤의 수출 증대를 억제하는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2.1.3. 중국의 동향

- 중국에서 재배되는 밤 품종은 약 400여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배면적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밤 주산지는 산둥성, 하남성, 호북성, 하북성, 안휘성 등으로 이들 지역이 전체 밤 생산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 최근에는 한국산 밤 품종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령성 단둥시, 산둥성 일조시, 하남시 신양, 광둥, 광서, 절강, 안휘, 복건 등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생산은 연간 2만 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 중국의 주요 산지별 밤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2002	2004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08/02)
하 북	55,049	84,661	134,895	168,874	166,115	33.6
요 녕	32,652	38,719	48,295	47,909	73,807	21.0
절 강	44,848	55,436	61,782	65,402	66,713	8.1
안 휘	55,207	68,506	83,483	86,223	119,460	19.4
산 동	172,269	202,207	230,322	221,416	240,618	6.6
하 남	76,986	102,343	139,043	188,298	213,244	29.5
호 북	60,429	101,613	128,282	133,749	168,066	29.7
광 서	31,668	34,567	52,980	61,676	57,032	13.3
기 타	712,576	234,683	260,579	292,963	345,397	-8.6
전 체	701,684	922,735	1,139,661	1,266,510	1,450,452	17.8
연평균증감율	-	15.8	15.6	16.1	17.8	

자료: 중국농업국. 「중국 농업연감 2008」.

- 중국은 주로 생밤을 중심으로 냉동밤, 밤통조림(가공밤)¹ 등을 수출한다. 생밤은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주로 수출하지만 그 외에 미국,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도 나가고 있다.
- 중국의 생밤 수출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였으나 2010년에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다.
 -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감소와 식품안전성 규제 강화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밤 수입은 국내 소비용이 아니라 일본 수출을 위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들여온다. 밤 수입은 2005년 대비 연평균 2.59%씩 감소하여 왔다. 한국산 생밤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일본 등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 생밤을 수입하는 것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용인 것으로 보여진다².

표 4-2. 중국의 국별 생밤 수출 동향

단위: 톤,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감률 ('10/'05)
전 체	37,091	43,379	45,513	40,973	46,640	37,002	-0.05
한 국	1,639	2,530	2,297	1,868	871	1,322	-3.87
일 본	14,316	14,478	11,084	8,388	8,818	8,731	-7.80
대 만	8,115	7,377	6,176	5,831	5,632	4,665	-8.50
태 국	1,016	1,073	1,631	2,635	3,701	4,798	74.45
아랍에미리트	1,480	3,083	2,285	1,321	2,843	1,427	-0.72
기 타	10,524	14,839	22,040	20,930	24,775	16,059	10.52

자료: www.kita.net

¹ 밤의 종류별 HS 분류코드번호는 생밤 08024010, 냉동밤 08119010, 가공밤 20081991이다.

² 일본 임야청의 통계자료에서는 일본 밤의 수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통계에서는 일본 밤 수입이 집계되고 있어 밤 가공제품개발을 위한 가공업체의 실험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중국의 생밤 수입동향

단위: 톤,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증감률 (’10/’05)
전 체	13,763	13,358	11,151	11,890	10,820	11,983	-2.59
한 국	13,163	12,676	9,481	9,468	9,134	10,166	-4.55
일 본	354	658	865	1,784	1,670	1,747	78.70
기 타	246	24	805	638	26	70	-14.31
한국비중	95.6	94.9	85.0	79.6	84.4	84.8	-19.82

자료: www.kita.net

2.1.4. 일본의 동향

- 일본은 밤 소비가 많지만 생산이 위축되면서 현재는 밤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밤 수급추이를 보면 2009년 생산량은 1만 1,907톤으로 2005년 대비 연평균 0.9% 감소하였으며, 수입량과 소비량은 각각 1만 6,166톤과 2만 8,073톤으로 2005년 대비 연평균 9.5%와 6.7% 감소하고 있다.

표 4-4. 일본의 밤 수급추이

단위: 톤,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감률 (09/05)
생 산	12,370	14,048	12,938	14,172	11,907	-0.9
수 입	26,075	26,273	21,830	17,858	16,166	-9.5
소 비	38,445	40,321	34,768	32,030	28,073	-6.7
수 출	-	-	-	-	-	-

자료: www.e-stat.go.jp

- 일본의 주요 밤 생산지는 이바라키, 쿠마모토, 에히메, 사이타마, 토치기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7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이바라키와 쿠마모토는 전체 생산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밤 품종은 100종류 이상이며, 츠쿠바, 탄바, 긴요세, 이시즈치 등이 주요 식재 품종이다.

- 일본의 밤 수입은 생밤(간밤 포함), 일시저장밤, 밤통조림으로 구분³되며 주로 제과용으로 사용된다. 밤을 이용한 제품에는 밤 빵을 비롯하여 케익, 양갱, 푸레, 밤 술, 밤 밥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판매·소비되고 있다.
- 일본의 밤 수입은 중국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밤(간밤포함)의 경우 한국산 수입은 정체인 반면 중국산 수입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57%수준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산 밤은 가격이 저렴하고 군밤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지만 식품안전성 문제가 빈번히 거론된다.
 - 한국산 밤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⁴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므로 일반소비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다. 그러나 생산이력제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수입상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표 4-5. 일본의 국별 밤 제품별 수입 동향

단위: 톤, %

제 품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11)	연평균증감률(09/05)
한국	생 밤	4,622 (21.4)	4,143 (18.8)	4,054 (23.3)	4,935 (34.2)	4,168 (30.1)	2,868 (29.4)	-2.5
	일시저장	34 (4.8)	27 (4.1)	26 (3.1)	40 (6.7)	20 (4.8)	212 (41.9)	-10.3
	밤통조림	8 (0.4)	87 (4.1)	85 (4.1)	95 (5.4)	80 (4.4)	2 (0.1)	225.0
중국	생 밤	16,853 (78.2)	17,891 (81.1)	13,324 (76.6)	9,479 (65.6)	9,611 (69.5)	6,691 (69.9)	-10.7
	일시저장	680 (95.3)	630 (95.9)	806 (96.9)	561 (93.3)	396 (95.2)	293 (58.1)	-10.4
	밤통조림	1,787 (81.3)	1,641 (76.4)	1,450 (70.7)	1,209 (68.4)	1,349 (74.4)	1,419 (82.9)	-6.1

자료: www.kita.net

³ 이들 밤의 HS코드는 생밤(간밤 포함) 080240000, 일시보존처리밤 081290430, 밤 통조림 200819193 이며, 완제품으로는 마룽그라세 200600010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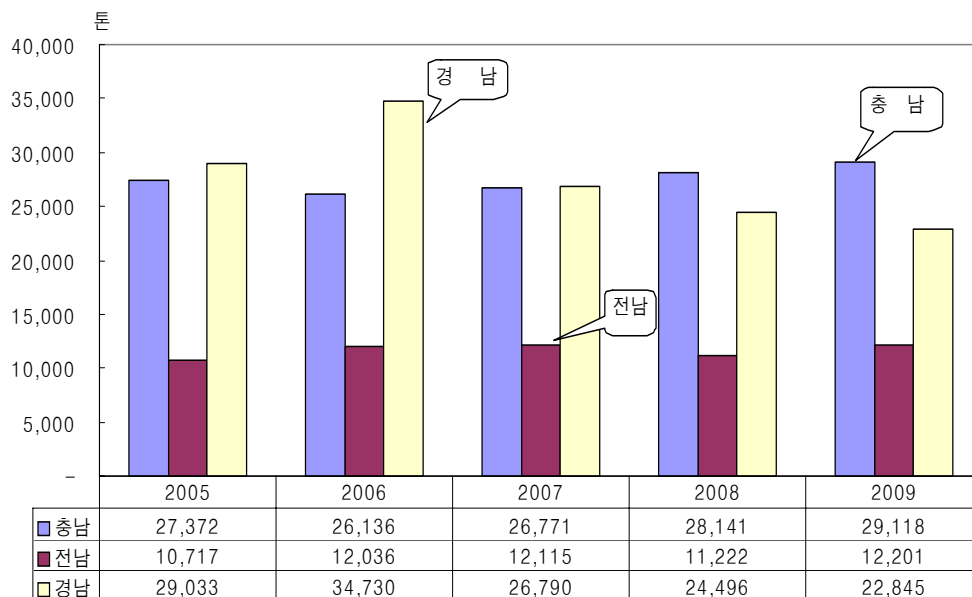
⁴ 2009년 기준으로 생밤의 일본수입단가는 평균 kg당 368엔이지만 한국산은 661엔, 중국산 241엔으로 중국산 보다 약 2.7배 높게 형성되어 있다.

2.2. 국내동향

2.2.1. 생산 및 소비동향

- 국내 밤 생산량은 2005년 7만 6,447톤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2006년 8만 2,450톤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7만 5,911톤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밤 생산량은 생육기의 이상기온, 수확기의 태풍, 일조량 부족 등 기상여건의 변화와 산지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평년대비 약 15~19%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 보면 기존에는 남부지역(경남, 전남)의 생산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충남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밤 주산지는 남부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충남은 2만 7,372톤에서 2만 9,118톤으로 증가하였고 전남은 1만 717톤에서 1만 2,201톤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경남은 2만 9,033톤에서 2만 2,845톤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4-4. 지역별 밤 생산 동향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 남부지역은 고령목이 많고 보식위주의 밤나무림 구성과 조방경영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체작목 재배로 전환하고 있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부지역은 신규조성을 통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토양관리와 집약적 경영방

식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 소비자조사 결과에 따르면⁵ 밤 소비는 명절 및 제수용으로 45%, 삼계탕과 떡 등 조리용으로 26.2%, 생식용으로 18.6%, 기타가 1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입형태는 생밤으로 재래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며 구입 시 고려사항은 신선도와 원산지, 외형 등이다.
- 1회 평균 밤 구입량은 0.5~1kg, 선호 규격은 대(1개 당 무게 160g이상, 직경 33~37mm)이며, 원산지 선호는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밤의 영양학적 기능에 대해서는 47%가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발육 및 성장에 좋다’고 응답한 반면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났다. 향후 밤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밤의 기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표 4-6. 밤의 영양학적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밤의 영양학적 기능성	빈도	비율(%)
인체발육 및 성장에 도움	231	47.0
피부미용, 피로회복 감기예방	133	27.1
다이어트 식품	58	11.8
알지못함	67	13.6
기 타	2	0.4
합 계	4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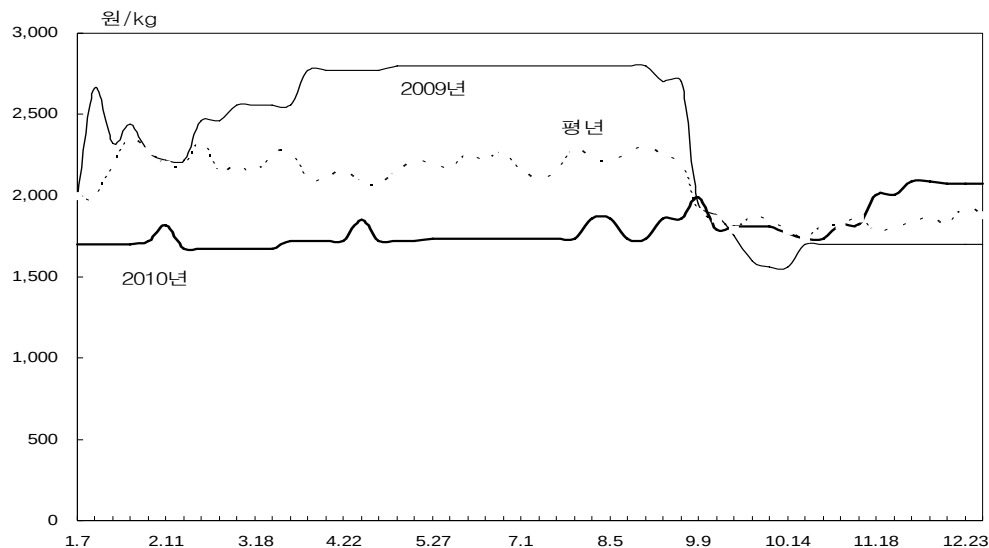
2.2.2. 유통 및 가격동향

- 우리나라 밤의 유통은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되는데 수출용은 수출업체가 직접 현지 농협, 생산자영농조합, 개인 생산자 등을 통해 수매하며 9~11월에 수매가 이루어진다. 수출물량의 약 80%는 현지 농협, 15%는 생산자조합, 5%는 개인 생산자 등을 통해 수매하며, 9월에는 간밤용, 10~11월은 생밤 수출용을 수매한다.
- 국내 유통의 경우 수매 시기는 수출과 겹치지만 유통경로는 농협, 산지수집상, 산림조합, 생산자조합, 직거래 등 다양하며, 2009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협 47%, 산지수집상 20%, 소비자와의 직거래 13%, 산림조합 2%, 기타 18%로 유통경로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⁵ 밤 소비자조사(2010.8.26-28)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밤 관측월보(2010년 10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 저온저장고와 산지유통센터 설립 등 정부지원과 함께 인터넷의 활용, 체험농장 운영 등으로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2010년 밤 산지가격은 <그림 4-5>와 같이 움직여 왔다. 2009년산 저장 밤이 유통되는 상반기에는 유통물량이 많아 평년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으나 9월 이후 이상기온현상으로 밤 생산이 늦어지고 유통량이 감소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유통물량 부족과 겨울철 소비(12~2월)로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5. 밤 산지평균가격 동향(대율)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2.2.3. 수출입 동향

- 최근 5년간 밤 수출은⁷ 2006년 1만 6,945톤(3,329만 6천 달러)에서 2008년 1만 1,377만 톤(2,653만 3천 달러)으로 매년 감소해 왔으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는 총 1만 4,051톤(3,015만 7천 달러)⁸을 수출하였다.
- 밤 수출이 회복된 것은 일본과 중국 이외에 미국, 프랑스, 대만 등으로 수출선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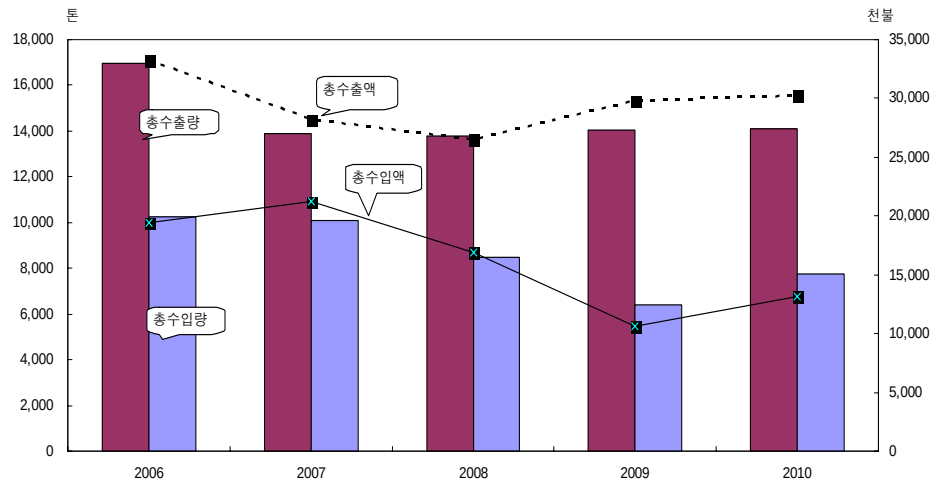
⁶ 자세한 조사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관측(밤)」 2009년 12월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기타는 생산자조합,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다.

⁷ 제품별 수출입 밤을 모두 생밤으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계수는 깻밤 2.0, 냉동밤 1.4, 가공밤 1.1 등이다.

⁸ 2010년도는 산림청의 임산물수출입실적 보고자료를 사용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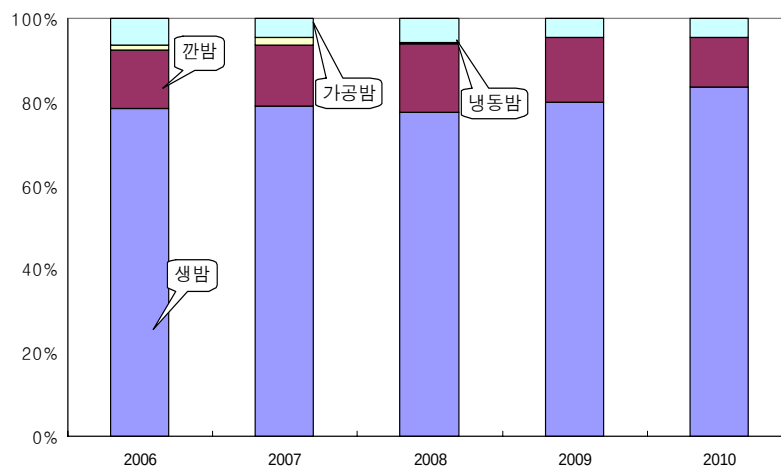
- 밤 수입은 2006년 1만 236톤(1,945만 6천 달러)에서 2009년 6,421톤(1,057만 3천 달러)으로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7,761톤(1,314만 5천달러)으로 나타났다.
- 밤 수입이 2006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은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수입 밤의 가격상승 등에 기인한다.

그림 4-6. 밤 수출입 추이



자료: www.kita.net

그림 4-7. 밤 제품별 수출 추이



자료: www.kita.net

- 밤 수출량은 연평균(2006~2010) 1만 4,434톤이며 이 가운데 생밤은 1만 1,590톤, 간밤은 2,082톤, 가공밤은 761톤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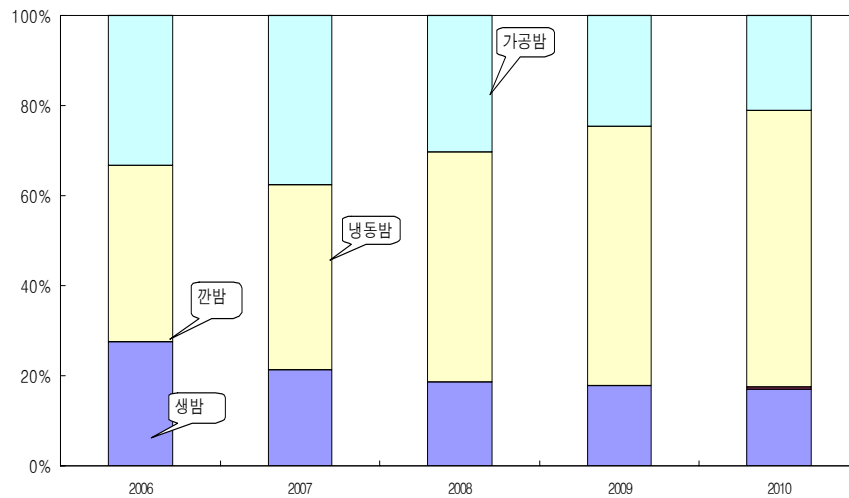
- 생밤은 중국, 미국으로, 깎밤은 일본으로, 가공밤은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다.
- 깎밤의 대일 직접 수출은 일본의 소비감소로 2008년 980톤에서 2010년 800톤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수출선이 다변화되면서 생밤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2008년 1만 43톤에서 2010년 1만 166톤으로, 미국으로는 556톤에서 1,261톤으로 늘었고 수출이 없었던 대만과 프랑스에도 2009년 12톤과 80톤에서 2010년 77톤과 60톤이 수출되는 등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생밤을 중국으로 수출·가공하여 일본으로 우회 수출하는 형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외인력을 활용하여 깎밤 가공률을 높임과 동시에 신제품 개발과 일본 이외 새로운 시장 개척 등으로 다양한 수출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 이와함께 수출 밤의 품질개선, 수확·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억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밤 수입은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량은 연 평균(2006~2010) 8,491톤이며 이 가운데 생밤 1,804톤, 냉동밤 4,183톤, 가공밤 2,593톤이다¹⁰.
- 생밤의 경우 관세할당제도¹¹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소시장접근물량은 2,170톤으로 2006년을 기점으로 수입량은 계속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 2010년의 경우 깎밤 25톤이 수입되었는데 한국산 밤을 중국에서 가공하여 국내에서 감로자를 만들기 위해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 가공밤은 별도 가공 없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포장된 제품인데,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 냉동밤은 밤 수입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제과용과 식자재용 원료로 사용되며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010년 수입량은 총 7,704톤(생밤 기준)이며 이 가운데 냉동밤이 62%인 4,752톤, 가공밤이 21%인 1,641톤이다.

⁹ 각 제품은 모두 생밤으로 환산한 양이다.

¹⁰ 깎밤 및 냉동밤, 가공밤 모두 생밤으로 환산한 양이다.

¹¹ 생밤(깎밤포함)의 기본세율은 50%이지만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219.4% 또는 1,470원/kg 가운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림 4-8. 제품별 밤 수입 추이



자료: www.kita.net

2.3. 수급전망

- 국내 밤 생산은 남부지역의 고령화, 수세약화와 함께 이상기온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집약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 조성된 밤나무가 많은 중부지역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생산량은 2011년에 약 7만 4,876톤, 2021년에는 약 7만 6,434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밤 수입은 중국산 밤의 안전성문제와 국내 경기침체로 감소하였으나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냉동밤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약 7,900톤, 2021년에는 약 9,375톤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 밤 수출은 일본의 소비감소에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산에 비해 안전성과 품질이 뛰어나며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선이 다변화되고 있어 2011년에는 1만 4,379톤, 2021년에는 1만 6,58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밤 소비는 경기침체로 둔화가 이어지면서 감소하였지만 경기회복이 되면서 2011년에는 6만 8,397톤, 2021년에는 6만 9,229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소비량은 약 1.4kg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밤 수급전망(생밤환산기준)

단위: 톤

	2009	2010	전망		
			2011	2016	2021
공 급	82,332	75,761	82,776	84,209	85,809
국내생산	75,911	68,000	74,876	75,327	76,434
수 입	6,421	7,761	7,900	8,882	9,375
수 요	82,332	75,761	82,776	84,209	85,809
국내소비	68,304	61,710	68,397	68,718	69,229
수 출	14,028	14,051	14,379	15,491	16,580
1인당 소비량(kg)	1.40	1.26	1.40	1.39	1.40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3. 표고버섯

3.1. 국제 동향

3.1.1 세계 생산동향

- 표고버섯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화교권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표고버섯 생산에 관한 세계 통계자료는 없으나 동북아 지역의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주요국의 표고버섯 생산동향(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톤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 국	2,214,444	3,293,235	2,880,000	3,091,115	n.a.
일 본	96,964	93,928	92,626	97,963	100,709
한 국	37,854	38,534	40,182	40,096	44,676
대 만	4,545	4,643	4,186	4,233	n.a.
미 국	3,391	3,245	4,467	4,392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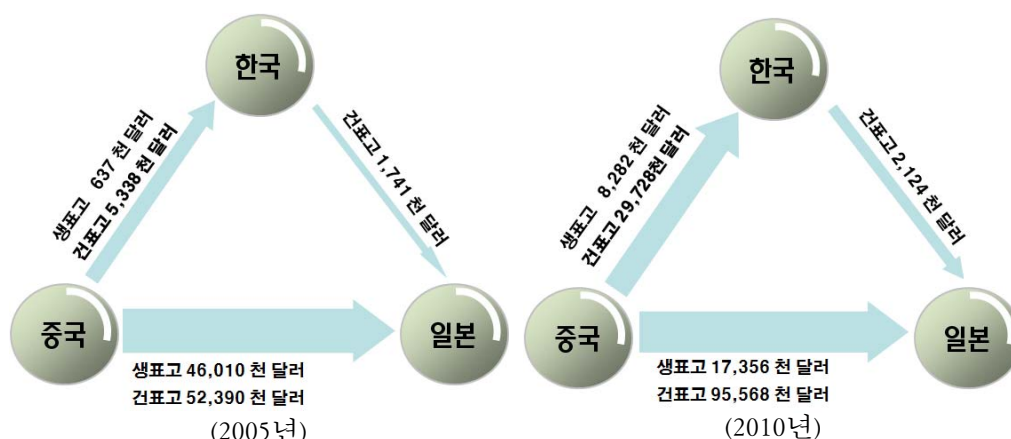
주: 자료는 각 국가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음.

- 미국과 유럽 등 서양에서도 표고버섯이 재배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특정버섯류 (specialty mushroom)로 분류되며 생산량도 적은 수준이다.
- 2008년 국가별 생산량을 보면, 중국 309만 톤, 일본 9만 8천 톤, 한국 4만 톤(1.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만과 미국의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표고버섯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3.1.2. 한 · 중 · 일 표고버섯 교역 동향

- 최근 5년간 동북아 지역의 표고버섯 교역 동향을 보면 중국의 수출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 건표고와 생표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 한국의 중국산 표고버섯 수입은 2005년 597만 5천 달러에서 2010년 3,801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 생산은 기상변동의 영향으로 정체 또는 감소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의 대(對)일본 표고버섯 수출은 2005년 174만 1천 달러에서 2010년 212만 4천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건표고 형태이다.

그림 4-9. 한 · 중 · 일 표고버섯(생표고 및 건표고) 교역량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의 대일본 표고버섯 수출은 2005년 9,840만 달러에서 2010년 1억1,292만 4천 달러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건표고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생표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이 2006년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부 중국산 생표고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건표고 수출의 증가는 수출량의 증가보다는 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한 것이다.
- 국제 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의 경쟁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내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수입국의 식품 안전성 기준 강화, 중국산 표고버섯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 검출 여파 등으로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확대를 억제하는 요인들도 있다.

3.1.3. 중국의 동향

- 중국의 표고버섯 재배는 기록상 8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인공재배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이다. 그러나 중국의 표고버섯 재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은 1980년대 후반이후 생산책임제의 도입, 부빈계획(扶貧計劃)과 성화계획(星火計劃)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008년도 중국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309만톤에 이르는데,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 복건성이 42만톤으로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하남성, 호북성, 절강성 등이 주산지라 할 수 있다.
- 표고버섯 주산지는 남부의 복건성, 절강성에서 북부산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중국정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채규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정책의 실시, 남고북이(南菇北移) 전략의 채택, 내륙 도시의 경제성장에 따른 북부 도시에서의 수요증가 등이다.
- 중국의 생표고 수출은 2005년 대비 연평균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 네덜란드, 한국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 홍콩,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다. 한편, 건표고 수출은 2005년 이후 감소하여 왔으나 2010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 생표고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이 2004년 86%에서 2010년 32%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6년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 등 식품안전성 규제 강화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 생표고를 수출하는 주요 지역은 절강(48.5%), 상해(18.5%), 복건(12.9%), 요녕(9.3%) 등이며, 건표고 주요 수출지역은 복건(23.1%), 호북(46.2%), 하남(15.9%), 광둥(2.5%), 절강(6.7%), 상해(3.0%) 등으로 특히 동부 연안지역의 수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중국은 동부 연안지역 수출농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버섯을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주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도시발달에 의한 내수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표고버섯의 생산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표고버섯 생산과 수출의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표 4-9.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 동향

단위: 톤

구분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생 표 고	전 체	32,265	26,409	22,576	20,687	10,675	14,176	17,605
	일 본	27,859	21,576	17,016	10,539	4,927	4,874	5,703
	미 국	2,549	2,657	3,190	3,100	3,628	3,978	3,748
	한 국	201	351	710	309	654	1,403	2,651
	네덜란드	315	653	608	726	710	670	806
	말레이시아	20	3	10	0	16	1,352	2,743
	기 타	1,320	1,169	1,042	6,013	739	1,900	1,954
건 표 고	전 체	24,678	24,226	17,599	19,919	14,119	21,806	46,434
	베트남	196	264	189	310	305	1,708	14,308
	일 본	7,881	7,667	7,200	6,748	5,186	5,436	6,003
	홍 콩	8,265	6,907	3,748	4,917	1,818	2,952	8,116
	한 국	1,165	1,302	1,406	1,508	1,562	1,643	2,201
	태 국	1,321	1,796	459	490	476	2,873	4,037
	말레이시아	1,207	1,428	756	1,805	786	1,883	3,220
	미 국	1,478	1,294	938	1,080	765	1,797	1,932
	기 타	3,164	3,568	2,901	3,062	3,222	3,514	6,617

자료: www.kita.net

3.1.4. 일본의 동향

- 2009년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7만 5천톤(6.6% 증가)이었다.

한편, 건표고 생산은 1980년에 1만 3,600톤에 이른 적도 있지만 매년 소폭 감소하여 2009년 3,597톤(전년 대비 7.0% 감소)이 생산되었다. 2009년 건표고 수입량은 6,086톤으로 일본 국내 소비의 63.2%를 차지하였다.

- 건표고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이유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중국산 건표고의 수입증가, 후계인력의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 일본의 표고버섯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톱밥배지를 이용한 재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톱밥배지를 이용하는 생산자수는 전체 생산자의 9.8%에 불과하지만 생표고 생산량의 81.8%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목재배를 고수하는 생산자들은 건표고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표고버섯 포장에 재배방식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표 4-10. 일본의 표고버섯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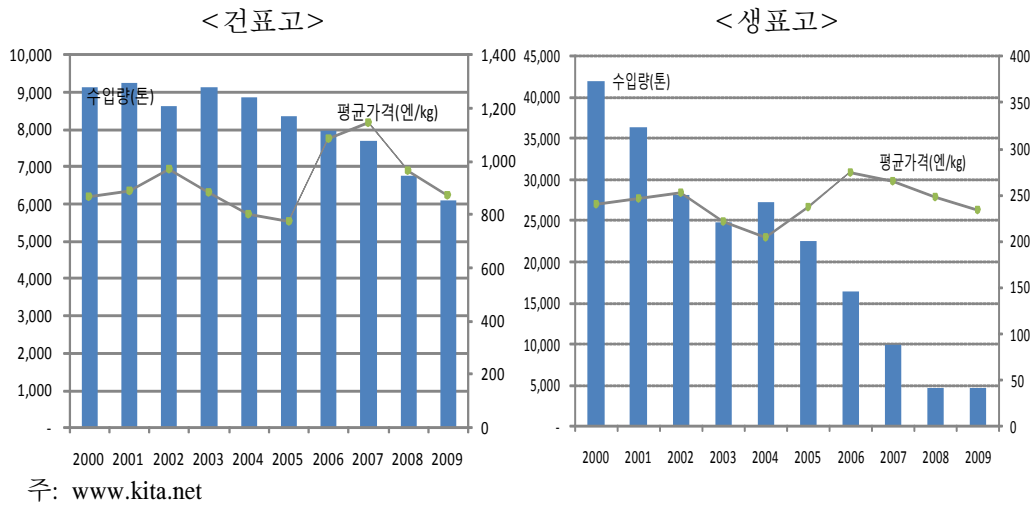
단위: 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 표 고	생 산	66,204	65,186	66,349	67,155	70,342	75,016
	수 입	27,169	22,526	16,394	9,972	4,689	4,722
	소 비	93,314	87,712	82,743	77,127	75,031	79,738
	1인당소비(g)	731	686	648	604	588	625
건 표 고	생 산	4,088	4,091	3,861	3,566	3,867	3,597
	수 입	8,844	8,375	7,949	7,700	6,759	6,086
	수 출	73	85	76	69	60	53
	소 비	12,859	12,381	11,734	11,197	10,566	9,630
	1인당소비(g)	101	97	92	88	83	76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 임야청.

- 일본에서도 중국에서 종균 접종된 배지를 수입하여 단기간 재배한 후 수확하여 출하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표고버섯이 일본산으로 출하되고 있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생표고 수입량은 2004년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중국산 야채에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요 부진이 계속되었고 중국산의 원산지 위장표시문제가 드러나 표고버섯 수요에서 국산회귀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10. 일본의 표고버섯 수입동향



3.2. 국내동향

3.2.1. 생산 및 소비

- 우리나라 표고버섯 생산량(생표고 환산 기준)은 2004년 3만 8천 톤에서 2009년 4만 5천 톤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에는 봄철 일조량 부족, 저온현상 등 불규칙한 기상으로 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4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 생표고는 2009년 2만 2,797톤이 생산되어 전년보다 9.7% 감소하였고, 건표고는 2009년 2,993톤(생표고 환산 2만 1,879톤)이 생산되어 전년보다 47.3% 증가하였다.
 - 최근 원목재배 임가의 신규 접종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균상재배 방식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어 생표고 생산량은 2만 5천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건표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산 생표고의 수입증가, 톱밥배지 생산에 의한 생표고 출하증가 등으로 원목재배 생산자들이 건표고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11. 우리나라 표고버섯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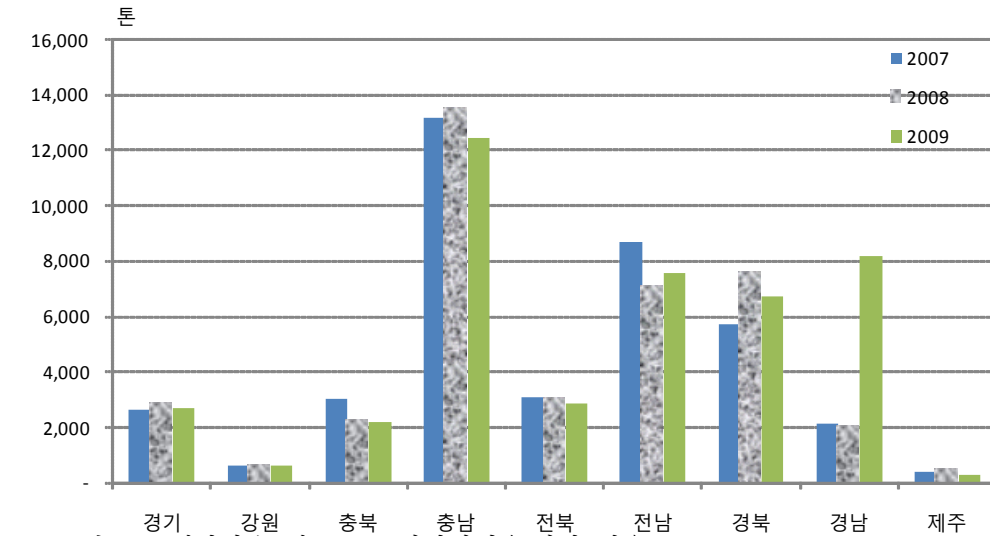
단위: 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 표 고	생 산	24,397	24,509	23,592	25,357	25,242	22,797
	수 입	115	335	639	263	615	1,301
	수 출	-	1	-	2	7	3
	소 비	24,511	24,842	24,231	25,618	25,850	24,095
	1인당소비(g)	510	516	502	529	532	494
건 표 고	생 산	1,922	2,032	2,044	2,028	2,032	2,993
	수 입	1,254	1,080	893	1,159	1,836	1,708
	수 출	235	349	197	346	280	238
	소 비	2,942	2,763	2,740	2,842	3,588	4,463
	1인당소비(g)	61	57	57	59	74	92

자료: 임산물생산통계

-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은 2009년 생표고 494g, 건표고 92g으로 나타났다. 건표고 소비는 정체상태에 있다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지만 생표고 소비는 전년보다 7.1% 감소하였다.
- 가정용 소비가 많은 생표고는 점차 포화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외식 소비가 많은 건표고는 아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2009년 표고버섯의 주요 지역별 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충남(28.2%), 경남(18.5%), 전남(17.1%), 경북(15.3%)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9.1%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하여 경남에서 건표고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 생표고의 최대 주산지는 부여(14.9%), 청양(6.0%), 공주(5.4%)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 지역이며, 이외에 청송(6.7%), 문경(4.8%)을 들 수 있다.
- 건표고의 최대 주산지는 전통적으로 장흥이었으나 2009년에는 거제가 최대 산지로 부각되어 생산량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장흥(18.9%), 진안(4.1%), 문경(3.3%)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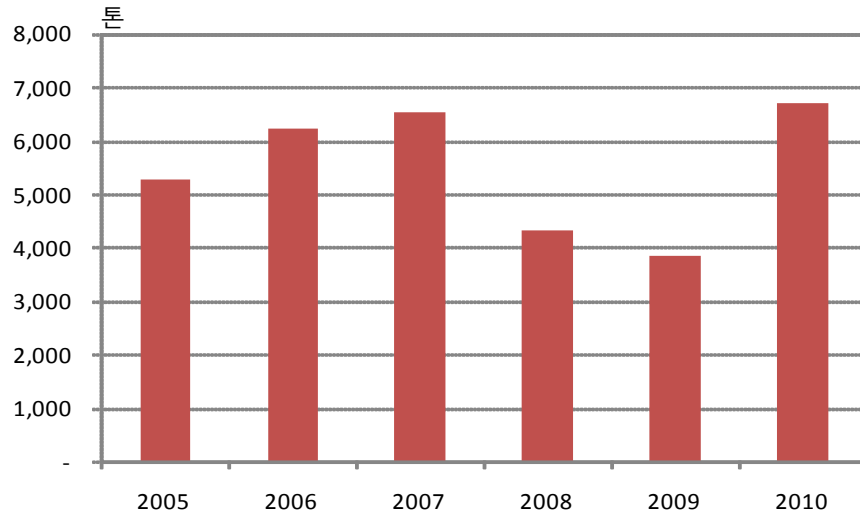
그림 4-11. 지역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 7.31).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 국내 표고버섯 생산량에서 톱밥재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 미만, 2008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15~20% 수준으로 추정된다.
 - 톱밥배지 재배방식은 활엽수 톱밥을 사용할 수 있고 잔가지 등 폐잔재를 활용하여 원목재배보다 자원이 절약된다. 또한 관리가 쉽고 재배 기간이 짧아 자본회수가 용이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표고버섯 재배방식은 점차 톱밥배지 재배로 전환되고 있다.
 - 표고자목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불규칙한 기상변화에 대한 적응을 이유로 톱밥배지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재배자가 늘어날 것이며, 톱밥배지 공급센터의 공급물량 대부분이 예약됨으로써 톱밥배지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톱밥배지 재배는 아직 재배기술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하여 생산자간 품질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국내 표고버섯 가격이 오를 때는 중국에서 접종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1~2개월내에 생산하여 출하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표고버섯 재배에 대해서는 원산지에 대한 분명한 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2. 톱밥배지(버섯종균)의 수입 추이



주: 버섯종균(HS 코드 060290904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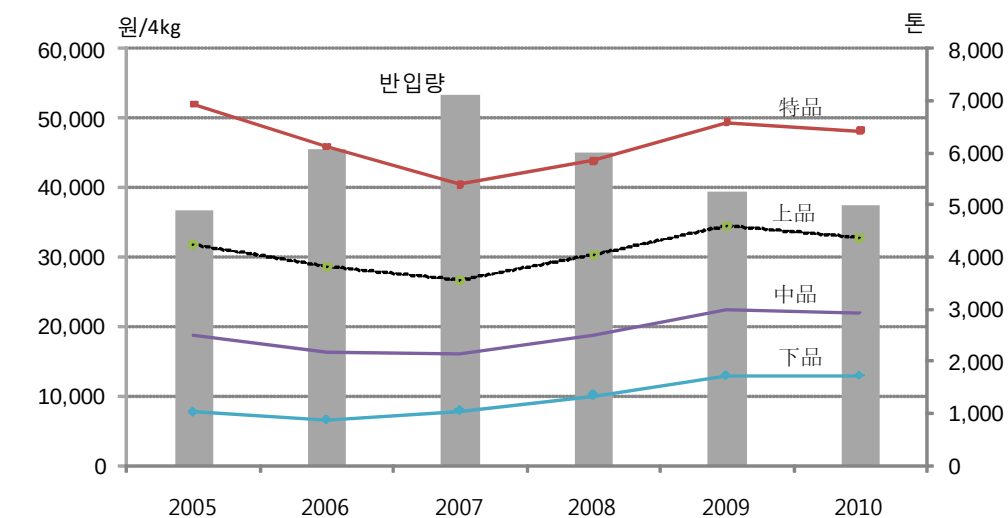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주로 생표고를 구매하며, 한달에 한번 정도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회 구입할 때 200~500g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른 버섯과 비교하여 표고버섯의 강점은 영양(29.1%), 맛(25.5%), 향기(22.5%)로 나타났고, 요리의 간편성과 다양성, 가격 등은 다른 버섯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2. 유통 및 가격

- 생표고는 산지조합 및 단위농협(60%)과 작목반(40%)을 통해 도매시장(80~85%)으로 출하되는데, 전체 출하물량의 25~35%는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며 대부분이 수도권 및 지방의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 최근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소비자 직거래, 대형마트 직접 납품 등 판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물량의 전량 판매 용이성과 운송의 편리성 등으로 가락시장 유통 비중이 비교적 높게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 직거래 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 직접 납품을 선호하는 임가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생표고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중품 기준)은 2007년까지 생산량이 늘어나며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생산량이 정체를 보이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가격 추이를 보면 2009년에는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 들어 다소 하락하였다. 2010년도 표고버섯 생산은 매우 부진하였지만 톱밥배지 표고버섯 출하의 증가, 중국산 생표고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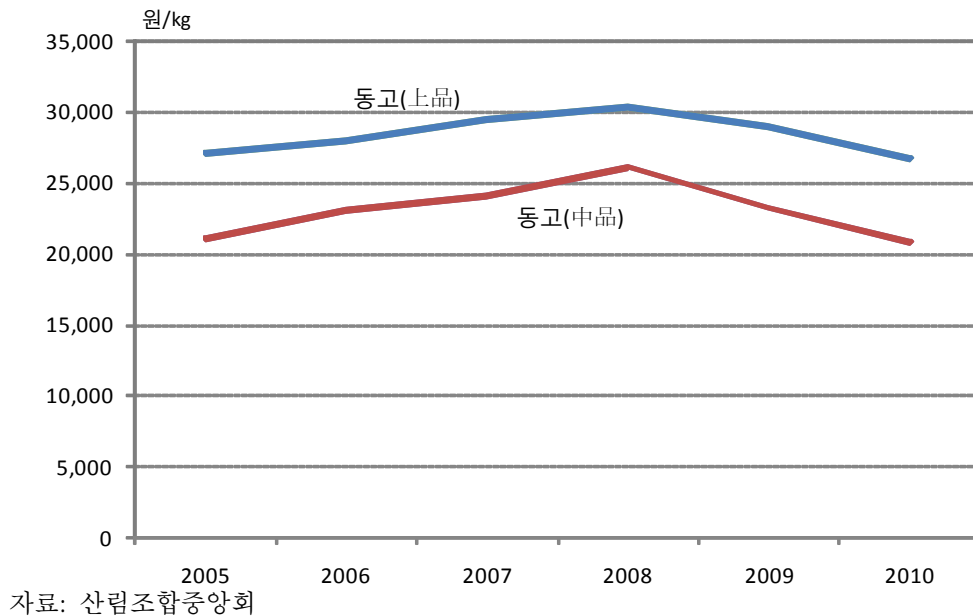
그림 4-13. 생표고의 등급별 도매가격과 가락시장 반입량 추이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건표고는 주산지인 장흥, 문경, 거제 등의 산지 농협 및 산지 표고협회에서 봄·가을 입찰을 거쳐 유통되며, 이 가운데 장흥 유치농협, 용두농협의 입찰 물량이 건표고 출하량의 40~45% 정도를 취급한다.
- 건표고 생산지 평균가격(동고 상품기준)은 2008년 kg당 30,314원, 2009년 29,027원, 2010년 27,771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건표고 생산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 기상요인에 영향을 받겠지만 건표고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자재 및 건표고 슬라이스 등 다양한 용도의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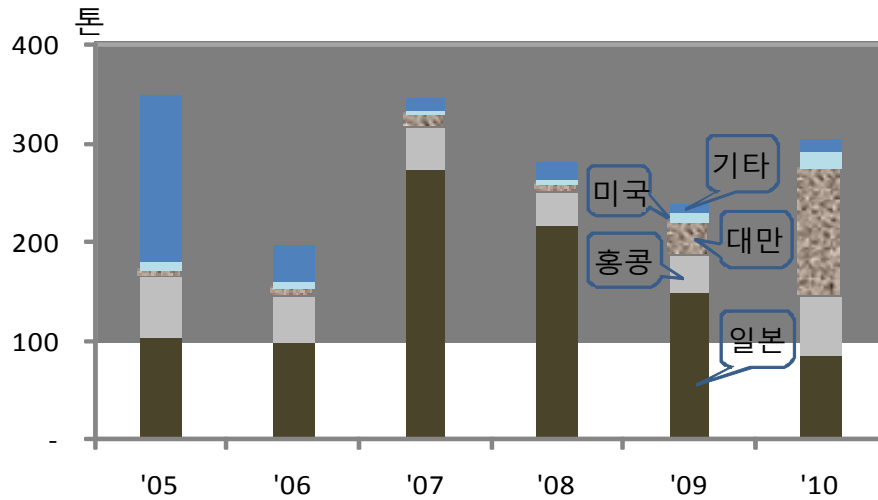
그림 4-14. 건표고 생산지 가격의 추이



3.2.3. 수출입

- 표고버섯 수출은 건표고가 90% 이상이며, 1980년대 말까지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였으나 1990년부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 200~300여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표고버섯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시장구조가 생표고 내수 위주로 바뀌었고 해외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 건표고 수출은 2006년 197톤(3,390천 달러), 2010년 306톤(5,191천 달러)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대만 131톤(43%), 일본 86톤(28%), 홍콩 58톤(19%), 미국 17톤(6%), 기타 13톤(4%)이다.
 - 2007년 일본과 홍콩으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나, 소량 수출되던 대만으로의 수출이 2010년 131톤 증가하여 일본과 홍콩으로의 수출비중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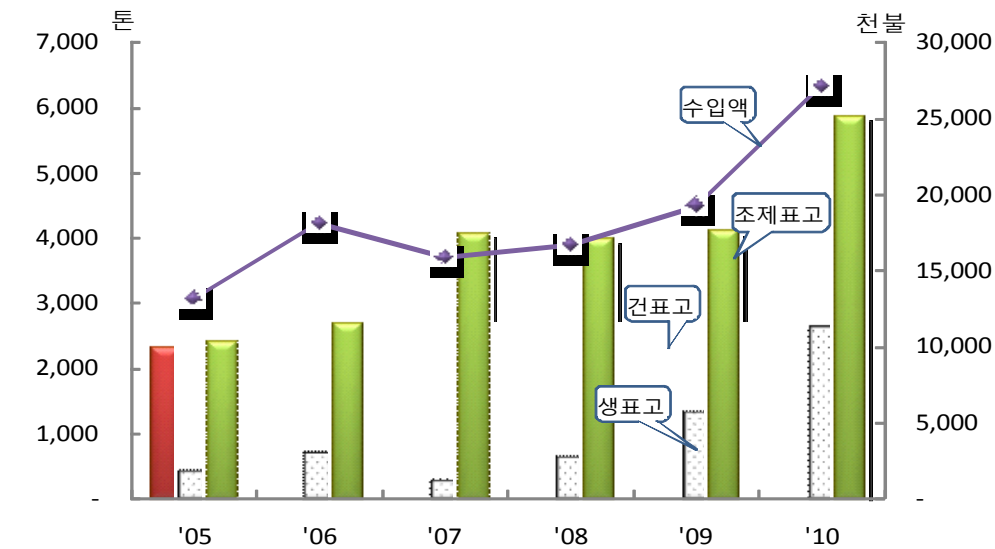
그림 4-15. 건표고의 국가별 수출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 건표고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산과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원목재배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고버섯의 수입은 주로 건표고, 조제표고이지만 근래에는 생표고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2010년도 건표고 및 조제표고 수입량은 각각 2,387톤, 5,851톤이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건표고는 주로 복건성(35.8%), 하남성(23.9%), 호북성(14.6%) 등에서 들어온다.
 - 조제표고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며 중화요리에서 식자재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조제표고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표고 수입량은 2,619톤으로 불규칙한 기상변화로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생표고는 주로 절강성(64.8%), 상해(18.0%) 등에서 들어온다.

그림 4-16. 표고버섯의 제품별 수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3.3. 수급 전망

- 우리나라 표고버섯 생산은 톱밥배지 재배가 늘어나고 국내 소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기상변동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2011년에는 200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에는 약 44,158톤, 2021년에는 약 50,782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은 중국산 위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15,287톤, 2021년에는 약 21,44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하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생산이 안정되면 수입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표고버섯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는 1,380톤, 2021년에는 797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가격이 점차 낮아지면서 수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 건강식품 및 자연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면서 표고버섯 소비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인당 표고버섯 소비량은 2011년 1.19kg, 2021년에는 1.45kg으로 예상되며, 국내 총소비량은 2011년 58,066톤, 2021년에는 71,425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이 포화점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소비 증가는 가정용 소비보다는 외식용 소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2. 표고버섯 수급 전망(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톤

	2009	2010	전망		
			2011	2016	2021
공급	57,676	59,669	59,445	69,104	72,223
국내생산	44,175	40,000	44,158	50,834	50,782
수입	13,501	19,669	15,287	18,271	21,440
수요	57,676	59,669	59,445	69,104	72,223
국내소비	55,973	57,483	58,066	68,060	71,425
수출	1,703	2,186	1,380	1,044	797
1인당 소비량(kg)	1.15	1.18	1.19	1.38	1.45

주: 2010년 국내생산량은 추정치임.

D321 / 2011. 12

임업관측사업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1년 12월 일 발행 2010년 12월 일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E-mail: dongyt@chol.com)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